



## 오르테가의 社會理論과 〈大衆人〉의 概念

### I. 序

오늘날 현대 사회의 특징이나 성격을 분석·비판하고, 이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大衆이나 大衆社會는 널리 이용되는 개념이나 이론 중의 하나이다. 당초 烏合之衆이나 愚衆으로 규정되던 大衆은 19세기 이래의 自由民主主義와 産業技術의 성장·발전에 따라 단순한 被治者나 特權에서 제외된 人間群의 한계를 넘어 이제는 投票者·購買人·觀客 등의 형태를 띠고 역사의 前面에 대두하게 된 것이다.<sup>1)</sup> 한편 이 같은 大衆의 출현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까지 安住하고 있던 기존의 共同體나 權威로부터 離脫, 새로운 大衆關係를 형성케 했으니 대규모적 조직의 지배, 大衆의 性格의 팽배, 人間의 疎外 및 非人間化의 만연 등과 같은 大衆社會의 諸般屬性을 노출하게 된 것이다.<sup>2)</sup>

1) José Ortega y Gasset, *Der Aufstand der Massen* [*La rebelion de las masas*, 1930] in *Gesammelte Werke*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 1954~6), III. Band, S. 40~41, 7~13 참조.

본고에서 사용하는 오르테가의 諸著作의 底本은 1953년 오르테가의 탄생 70周年을 맞아 독일의 Deutsche Verlags-Anstalt社가 발행한 前掲 全集版(全4卷)이다. 同編逸語全集은 오르테가 자신이 설립한 스페인의 Revista de Occidente社가 1946년 이후 發刊하기 시작한 오르테가의 全集 중 1952년까지 발표된 著作들을 오르테가가 自選, 이를 獨譯한 것이다.

그리므로 1962년 全9卷으로 완간된 스페인어版 全集 *Obras Completas de José Ortega y Gasset* (Madrid: Revista de Occidente, 1946~62) 중 前掲 獨逸語全集에 수록되지 않은 저작은 英譯本을, 英譯本이 없거나 필자로서 구득할 수 없는 것은 日本의 白水社刊 『オルテガ著作集』 全8卷(1969~70)을 이용했다. 한편 독자의 편의를 위해 오르테가의 著作이 처음 인용되는 경우 [ ]로서 스페인어와 初刊年代를 附記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英譯本 및 日譯本은 主引用本에 이어 이를 併記했다.

2) Willam Kornhauser, "Mass Societ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1968), Vol. 10, pp. 58~64 및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9), Part I 참조.



물론 이러한 大衆이나 大衆社會의 개념은 벨 Daniel Bell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애매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편협하여 <西方社會(크게 보아 全世界)의 규명을 위한 이론이라기보다는 현대적 生에 대한 낭만적 抵抗의 이데올로기로 공헌>하는 데 그칠지 모른다.<sup>3)</sup> 그러나 현대 사회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大衆이 갖는 갖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낱말이 분석·고발하는 大衆社會의 이론은 그것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諸側面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諸現象의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결의 것이라 하겠다.

더우기 현대 사회와 그 문명의 이해를 위해 막 대두되기 시작했으나 그때까지만해도 이렇게할 관심을 끌지 못한 大衆社會의 문제를 1927년에 이미 거론하고, 나아가 大衆의 <權力>과 <反逆>의 문제를 今世紀의 古典이라 불리지는 그의 主著『大衆의 反逆』(1930)<sup>4)</sup>을 통해 적절히 오르테가 Ortega y Gasset<sup>5)</sup>의 社會理論과 大衆人 mass-man의 개념은 충분히 우리의 학문적 관심을 자극하는 것이라 하겠다.<sup>6)</sup> 특히 오르테가의 大衆人의 개념은 그의 이론이 갖는 貴族主義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이나

3) Daniel Bell, *The End of Ideology: On the Exhaustion of Political Ideas in the Fifties* (New Revised Edition, New York: Collier Books, 1962), p. 38. ( ) 안은 筆者.

벨은 大衆社會論자들이 사용하는 大衆이란 용어가 (1) 未分化된 무리 *undifferentiated number*로서의 大衆, (2) 無能力者로 관경되는 大衆, (3) 기계화된 사회와 결부되는 大衆, (4) 官僚制社會와 결부된 大衆, (5) 暴民으로서의 大衆 등으로 大分된다고 하면서 이들 용어의 모순성·애매성·비역사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 같은 大衆社會論은 社會變化의 원인이 되는 社會 各 부분의 상호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pp. 22~5, 38.

4) 오르테가 의 『大衆의 反逆』은 美國의 저명한 月刊誌 *The Atlantic Monthly* 가 18세기의 무소의 『社會契約論』, 19세기의 마르크스의 『資本論』에 匹敵하는 20세기의 古典이라 적어주고 있으며, 美國藝術科學 아카데미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가 발간하는 季刊誌 *DAEDALUS* 도 今世紀의 古典으로 뽑은 16卷의 名著 가운데 하나로서 『大衆의 反逆』을 들고 있다.

Manuel Maldonado-Denis, "Ortega y Gasset and the Theory of the Masses," Vol. III of *Perspectives on Political Philosophy*, eds. by J.V. Downton, Jr. & D.K. Hart (Hinsdale Ill.: The Dryden Press Inc. 1973), p. 251; *DAEDALUS*, Winter 1974 (Twentieth-Century Classics Revisited; Special Issue), pp. 75~82.

한편 同籍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種이나 번역되어 있다 (張鮮影 역, 徵文出版社, 1973 및 『月刊中央』 역, 同誌 1974년 4월호 別冊附錄).

5) 本稿에서는 José Ortega y Gasset의 이름을 그의 姓에 해당하는 오르테가로 略稱한다.

6) José Ferrater Mora, *Ortega y Gasset: An Outline of His Philosophy* (New Revised E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3), p. 66.

타내는 人間疎外の 諸側面을 적나라하게 해부한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19세기에 발달된 自由主義의 民主主義와 技術에 의해 역사의 표면에 부상한 大衆은 지금까지의 분산된 小集團으로서의 고독한 생활에서 갑자기 하나의 集團으로서, 群衆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그것이 카페이전 호텔이전, 극장이전 기차의 좌석이전, 또는 해변이전 산책로이전이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장소, 모든 시설이 群衆으로 충만·밀집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사회에는 主役이 없는 채 코러스 *der Chor*로서의 群衆이 그 주요 登場人物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sup>7)</sup>

이제 역사의 主役으로 등장한 群衆으로서의 大衆은 지금까지 <幸福한 少數者 happy few>만을 위해서 깊숙이 숨겨 두었던 최후의 一角에까지 침투함으로써, 우아한 世界 *die elegante Welt* 까지도 <大衆의 樣式 *der Stil der Massen*>에 의해 지배되게 된 것이다.<sup>8)</sup> 그들 大衆은 그들의 凡俗性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의 全社會에의 強制를 기도하고 있으니, 그것은 물질적 향락의 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大衆은 大衆으로서의 屬性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엘리트의 地位와 場所를 대신 占有하게 되었으니, 여기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大衆의 변화된 태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徵候를 찾아볼 수 있다고 오르테가는 주장하고 있다.<sup>9)</sup> 특히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무한히 확대된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의 힘과 재능에 자족하는 大衆은 少數者들이 스스로의 統制를 위하여서 그들 자신에게 부과하던 <高貴한 義務 *noblesse oblige*>에는 아랑곳도 없이 그들의 <平均的 基準 *average standards*>으로서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거나,<sup>10)</sup> 그렇지 않으면 그들 대중 자신의 안일과 무사주의를 방해하는 문화나 도덕을 내팽개치고 破廉恥와 無軌道로 일탈하게 마련이라고 오르테가는 말하고

7) *Gesammelte Werke*, III, S. 7~9/*The Revolt of the Masses* (London: Unwin Books, 1961), pp. 9~10 (이하 *Revolt*로 略稱).

8) *Gesammelte Werke*, III, S. 15/*Revolt*, p. 16.

9) *Gesammelte Werke*, III, S. 12~3/*Revolt*, pp. 13~4.

10) *Gesammelte Werke*, III, S. 29, 34, 28/*Revolt*, p. 29, 34, 28. Kenneth R. Hoover, "The Political Thought of José Ortega y Gasset," *Midwe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 (May, 1966), p. 239 참조.

있다.<sup>11)</sup> 여기서 오르테가는 大衆의 支配에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그것이 가진 可恐할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大衆의 支配는 <그 半面은 교수대나 가요턴 Galgen 처럼 보이고 다른 半面은 凱旋門처럼 보이는 二重의인 형태를 가진 하나의 巨人, 하나의 宇宙的 疑問符 ein kosmisches Fragezeichen로서 우리 시대에 덮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sup>12)</sup>

이처럼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大衆, 大衆人 및 大衆의 支配에 대한 오르테가의 견해는 18세기말, 프랑스革命期中의 恐怖時代 이후 西歐의 知識人·文筆家들 가운데 內在해 있는 이른바 생활이나 사상의 모든 분야에 걸친 粗暴한 <下層階級>의 영향력에 대한 恐怖와 그 軌를 같이한다고 하겠다.<sup>13)</sup>

그러나 오르테가의 이같은 大衆人·大衆의 支配에 대한 貴族主義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大衆人으로 대표되는 現代人과 현대 사회에 대한 그의 분석은 현대가 처한 人間疎外의 樣相을 명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날의 人間疎外의 樣相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오르테가의 社會理論과 大衆人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의 人間疎外論과 어떻게 連繫될 수 있는가를 추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sup>14)</sup>

## II. 오르테가의 生涯와 思想的 特徵

1) 오르테가의 生涯와 著作 1898년, 美西戰爭의 결과로 스페인은 당시까지 남아 있던 최후의 식민지인 쿠바·푸에르토리코·필리핀을 상실

- 11) José Ortega y Gasset, *Im Geiste Galileis [En torno a Galileo, 1933]*, *Gesammelte Werke*, III, S. 508/*Man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Co. Inc., 1962) pp. 148~9; *Gesammelte Werke*, III, S. 114/*Revolt*, p. 107.
- 12) *Gesammelte Werke*, III, S. 15~6/*Revolt*, p. 107.
- 13) 이러한 思想的 系列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밀·키에르케고르·니체·플로베르·도스토예프스키 등이 포함된다. Geoffrey Clive, "Revolt of the Masses by José Ortega y Gasset," *Daedalus* (Winter 1974), pp. 75~6.
- 14) 拙稿, 「人間疎外論研究—Karl Marx의 疎外 에너지를 中心으로」, 『友石文壇·法經大論文集』(第1輯, 1967) 및 「人間疎外論研究(II)—Erich Fromm의 社會批判과 그의 Sane Society」, 『友石文壇·法經大論文集』(第4輯, 1970) 참조.

하고 400년 전 식민지 경영·이전의 스페인 本土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sup>15)</sup> 이 같은 美西戰爭의 패배는 스페인의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스페인의 정치적 문화적 현황과 이의 새로운 定立을 위한 痛렬한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우니무노 Miguel de Unamuno·바로하 Pío Baroja·아소린 Azorin·마차도 兄弟 Manuel & Antonio Machado 등과 같이 <98年의 世代 generacion del 98>로 불리는 一群의 사상가·문인·평론가들이 나타나 스페인 쇠퇴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再建의 길을 모색코자 하는 熱火 같은 운동이 전개되었으니 스페인의 정치적 군사적 패배는 스페인史上 그 類例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知的 文學的 運動을 점화시킨 것이다. 특히 이들 <98年의 世代>는 詩人이요 思想家인 우니무노의 先導에 의해 <스페인이란 무엇이며 스페인을 敎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하는 기본적인 命題를 내걸고 독일·프랑스·영국 등의 유럽 中心地의 문화에 열을 올렸다.<sup>16)</sup>

1883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출생, 1955년 73세를 一期로 사망한 스페인이 낳은 今世紀 최대의 사상가 중의 한 사람인 호세 오르테가 야가세트 José Ortega y Gasset도 바로 이러한 시기의 스페인인이었다.<sup>17)</sup>

15) Cf. David Thomson (ed.), *The Era of Violence, 1898~1945*, in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Vol. XL, pp. 150, 178, 219.

16) Arturo Barea, *Unamuno* (one of the series of *Studies in Modern European Literature and Thought* ed. by Erich Heller), (Cambridge: Bowes & Bowes Ltd., 1952), pp. 18, 19~20.

17) 오르테가를 <98年의 世代>에 포함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르테가의 연구자들에게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日本의 白水社가 오르테가의 著作集을 발간하면서 낸 판권사에서 「20世紀에 있어서의 스페인의 思想」이란 題目으로 8회에 걸쳐 아들 概觀한 上智大學의 J. 소페니아 教授는 20세기초의 스페인의 思想家들을 <98年의 世代>·<1900年의 世代>, 그리고 <27年의 世代>로 3분하고 오르테가를 <1900年의 世代>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이들 각각의 세대는 그 사상의 전개나 기본적인 입장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없지 않으나 근본적으로는 스페인의 再發見과 문예 부흥이란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H. Ramsden, *The 1898 Movement in Spain: Towards a Reinterpreta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75) 참조.

한편 오르테가의 생애와 사상을 개관함에 있어서는 그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로 傳記의 方法 a biographical method을 택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간은 그 자신이나 그의 행동, 그가 산출하는 모든 事物이 인간적인 것으로서 모든 인간은 幼年期·青年期·長年期·老年期라는 年輪을 가질 뿐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드라마라고 강조하고 있다.

10代에 이미 스페인의 몰락을 목도한 오르테가는 그의 청년 시대를 <나의 청춘은 스페인의 역사가 걸어가는 길과 나란히 모세의 늪(葦)처럼 불타고 있다>는 그의 슬회처럼 강인한 스페인의 역사적 의식 가운데서 보냈다.

1898년 마드리드大學에 입학한 오르테가는 1904년 『紀元 1,000年の恐怖 Los terrores del año mil』(Crítica de una leyenda)라는 논문으로 哲學博士 학위를 받고 이어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스페인 정부의 장학생으로서 독일 유학했던 것이다. 라이프찌히·베를린대학을 거쳐 마르부르크대학에서 보낸 2년간의 독일 유학 기간은 그의 학문적 희망과 知的 훈련을 충족시킴으로써 후일 그의 자유분방한 著作 가운데서 나타나는 라틴적 요소와 게르만적 요소의 결합을 성취시킨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sup>18)</sup>

귀국 후 1910년, 마드리드대학의 철학교수로 부임한 오르테가는 스페인內亂이 발발한 1936년까지의 4半世紀 동안 教師로서, 論客으로서, 書籍의 發行·編輯人으로서, 哲學者로서, 그리고 政治家로서 激動期的 스페인 現代史와 밀착, 정력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sup>19)</sup> 그는 스페인의 현실은 물론 그의 西歐 문명에 대한 비판과 학술적 정치적 입장을 『엘 솔 El Sol』·『엘 임파르시알 El Imparcial』·『비다 누에바 Vida Nueva』·『라 레투라 La Lectura』 등의 신문·잡지를 통해 발표하는 한편, 여기에 단 만족하지 않고 『傍觀者 El Espectador』<sup>20)</sup>·『西歐評論 Revista de Occidente』 등의 잡지를 스스로 창간·주재하면서 그의 비평적인 筆鋒을 종횡무진으로 구사했다.

정치적으로도 오르테가는 당시 스페인의 대표적 지식인인 마차도兄弟·마에스츄 Ramiro de Maeztu 등과 같이 <스페인 政治教育聯盟 La Liga

Man and People (El hombre y la gente, 1957), (New York: W.W. Norton & Co., 1957), p. 216 (本書는 獨逸語全集 出版 후에 發간된 遺稿다).; *Gesammelte Werke*, III, S. 408/*Man and Crisis*, p. 32; *Gesammelte Werke*, IV, S. 389~90 [*Historia como sistema*, 1941]; *Gesammelte Werke*, III, S. 62/*Revolt*, p. 59; F. Mora, *op. cit.*, pp. 4~5.

18) F. Mora, *op. cit.*, p. 16.

19) Howard Lee Nostrand, "Introduction," *Mission of the Univers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p. 4.

20) 『傍觀者』誌는 잡지라기보다 不定期的인 個人誌로서 오르테가의 개인적인 에세이뿐이다. 同誌는 1916년부터 1934년 사이에 모두 8권이 出刊되었다.

de Educación Política Española)을 결성하는가 하면, 1923년 국내 일부 지역의 自治要求와 모로코의 獨立運動이 프리모 데 리베라 Primo de Rivera 將軍의 軍事獨裁를 가능케 하자, 오르테가는 우나무노·마라농 Gregorio Marañón·아수아 Jiménez de Asúa 등과 더불어 知的 게릴라의 最戰線을 형성했던 것이다. 이들 지식인의 反獨裁 운동은 1927년에 결성된 大學生聯盟 Federación Universitaria Escolar 과 더불어 獨裁政府의 엄격한 견열에도 불구하고 대학·學會·카페에서의 집회나 신문을 통해 反獨裁的 분위기를 조성, 1930년에는 마침내 이를 물리치고 스페인의 第2共和國(1931~9)을 성립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것이다. 특히 이 第2共和國은 <知識人の 共和國>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르테가를 중심으로 한 아얄라 R. Pérez de Ayala·마라농 등의 지식인의 영향이 지대했으니 君主制에의 反對, 共和國立憲議會 Cortes Constituyentes 의 구성, 헌법의 起草·審議 등은 바로 이들이 창설한 <共和制擁護集團 Agrupación al servicio de la República>에 의해 주도되었다.<sup>21)</sup>

그러나 스페인의 第2共和國은 1936년에 발발한 內亂(1936~9)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가 하면 지식인들도 두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견선에서 서로 대치하게 된 것이다. 이에 오르테가는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이 다 같이 스페인을 그들 이데올로기의 實驗舞臺로 사용함을 지적하면서 左·右翼을 다 같이 비판했던 것이다. 특히 오르테가는 국내의 兩派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해외의 언론 기관이 輿論을 통해 內亂에 간섭함을 비난하면서 이들의 간섭은 오히려 內亂의 종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sup>22)</sup> 그러나 오르테가는 바로 이 시기에 重病을 앓아 곧장 파리로 가서 大手術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 병의 회복을 위해 네덜란드에서 머물다가 포르투갈을 거쳐 아르헨티나에서 長期滯留했으며, 1942년 포르투갈로 다시 돌아와서 終戰까지 머

21) 前掲, J. 소세니아의 所論 第7面) 참조.

22) H.L. Nostrand "Introduction", *op. cit.*, pp. 6~7.

사실 스페인內亂에 간섭한 強大國들은 이 內亂을 통해 일약한 제2차 세계 대전에 대비하여 新武器를 실험했으며(피카소의 그림으로 유명한 1937년의 게르니카戰圖가 그 대표적인 예다), 해외의 義勇군 역시 內亂의 종식에 이탤리아를 보듬이 되지 않은 채 프랑크에게 정권을 넘겨 주는 꼴이 되었다.

Cf. David Thomson (ed.),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Vol. XII, pp. 267~8, 284.



ERICH FROMM ONLINE

물었다. 그는 終戰 후에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왕래하는 한편 南美와 미국·독일·스위스·영국 등에서의 海外講演을 위해 周遊하는 한편 1948년에는 마드리드에서 마리아스 Julián Marías 와 더불어 <人文研究所 Instituto de Humanidades>를 설립했다.

한편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광범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르테가는 그의 정력적인 저술 활동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으니 6,000 페이지를 上廻하는 그의 모든 著述을 일정한 範疇로 분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을 우리들의 편의에 따라 主題別로 분류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스페인과 스페인적인 것을 취급한 작품으로는 낙후한 스페인 精神의 발견을 시도한 『돈키호테에 관한 省察 Meditaciones del Quijote』(1914)와 스페인 帝國 멸망 후에 나타나 심화 또는 격화되기 시작한 스페인의 분열과 탁월한 少數者에 반역하는 大衆의 문제를 다룬 『無脊椎의 스페인 España invertebrada』(1921) 등이 있다.<sup>23)</sup>

둘째로는 근대 사회의 危機를 다룬 것으로서 예술에 있어서의 非人間化 문제를 분석한 『藝術의 非人間化 La deshumanización del arte』(1925), 스스로 <오늘날의 인간에 관한 최초의 에프로우치>라고 말한 『大衆의 反逆』(193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고도 深遠한 構想과 [.....] 決意를 가지고 저술한> 『人間과 人間들』(1957년에 발표된 遺稿)<sup>24)</sup> 및 『大學의 使命 Misión de la Universidad』(1930)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本稿의 主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셋째로는 역사의 사명과 방법에 관한 것을 서술한 著書로서 토인비의 『歷史의 研究 A Study of History』를 소개·비판하고 世俗化 Nicht-heiligtsein·非正統性의 문제를 다룬 『世界史의 一解釋 Una interpretación de la historia universal』(1960년에 발표된 遺稿)과 『體系로서의 歷史』(1941), 『危機의 圖式 Esquema de las crisis』(1942) 등이 이 系列에 속한다.

네째로 새로운 哲學의 형성을 위한 기도로는 데카르트 이후의 近代哲學이 갖는 合理主義와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며 生命의 可變性을 믿는 相

23) 여기서의 <無脊椎>란 스페인의 代名詞로 쓰이고 있다. Helene Weyl, "José Ortega y Gasset,"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July, 1937), pp. 465~8.

24) 1937년 5월에 쓴 『大衆의 反逆』의 프랑스語版 序文에 나오는 句節이다. 『オルテ가著 作集』, 第2卷, p. 39. Helene Weyl, *op.cit.*, p. 468 참조.

對主義의 견해를 超克하려고 한 『오늘날의 課題 El tema de nuestro tiempo』(1923)와 『갈릴레오에 관하여』(1933), 『哲學이란 무엇인가? ¿Que es filosofía?』(1958년의 遺稿) 등이 여기에 속한다.<sup>25)</sup>

그리고 다섯째로는 藝術論으로서 『고야論 Goya』(1958), 『벨라스케스論 Velázquez』(1959) 등의 美術論과 기타 文學論들이 있다.<sup>26)</sup>

2) 오르테가의 思想의 特徵 前述한 바와 같이 스페인을 배경으로 敎育者·에세이스트·서적의 편집 겸 발행인·사상가, 그리고 정치가로서의 오르테가의 활동은 <近代精神의 一人劇>을 보는 듯 풍부하고도 다채로운 것이라 하겠다.<sup>27)</sup> 사실 오르테가의 素材는 철학과 문학은 물론이요, 정치론·사회론·풍물론·역사적 해석 등 多樣을 극하고 있으니 그의 全集 末尾에 나타나는 人名 인덱스는 가히 東西古今을 망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素材의 多樣性은 단순히 천박하거나 피상적인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다재 다능함을 증언해 주고 있으니, 이러한 그의 思想의 媒體로서 선택된 신문이나 잡지는 오르테가를 스페인 知識人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존재로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스페인 민중의 사상적 高揚에 先導的 役割을 自任케 한 것이다.<sup>28)</sup>

그렇기에 오르테가는 철학자의 思念의 세계가 결코 은둔적일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세기 이래의 스페인의 知的 貧困을 벗어나기 위해 우나무노와 같이 大衆에게 단순한 자극과 想像力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은 思考力을 심어 주려고 했었다. 따라서 그의 철학적 에프로우치는 전통적이고도 아카데미한 철학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25) 그는 獨逸留學中 京벨·코넬 및 나트르프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그의 사상적 先驅는 1911년에 사망한 덜타이었다.

Julián Marías, "Ortega y Gasset, José,"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68, Vol. 11, p. 343; H.L. Nostrand, "Introduction," *op. cit.*, pp. 15~8.

26) 한편 오르테가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개관한 우수한 著書 중의 하나인 Ortega y Gasset의 著者 F. Mora는 그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年代的으로 구분하고 著述들도 각 시기에 일치시키고 있다.

① 1902~14, 객관주의 (『돈키호테에 관한 省察』).

② 1914~23, 퍼스펙티브리즘 (『傍觀者』 I~III, 『無脊椎의 스페인』 등).

③ 1924~55, 理性=生命主義 ratio-vitalism (그의 1924년以後의 著書).

a. 生的 理性의 概念, b. 人間의 理論, c. 社會의 理論.

F. Mora, *Ortega y Gasset*, pp. 5~7, 14, 20~1.

27) H.L. Nostrand, "Introduction," *op. cit.*, p. 6.

28) F. Mora, *op. cit.*, pp. 1~2, 14.



民衆과 접하기 쉬운 신문·잡지를 통해 非學問的인 題材를 선택했던 것이다.<sup>29)</sup>

이와 같은 오르테가의 입장은 <98年の世代>와 시기적으로 그 傳統을 잇는 20세기 初頭의 스페인 知識人들이 주장하는바 스페인과 스페인적 인 것의 再發見과 더불어 피레네山脈의 平地化 leveling 를 통한 유럽 문화의 導入이라는 기본적 命題와 결합될 때 새로운 사상적 특징을 드러 내는 것이라 하겠다.

美國의 社會思想史家 스투어트 휴우즈는 그의 『意識과 社會』에서 1920 년대의 유럽의 社會思想을 논하면서 <1920년 이래의 수년간에 걸쳐 먼저 독일·프랑스·이탈리아에서 발전된 意識과 社會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西方世界의 다른 부분에서도 점차 많은 支持者를 획득하기 시작했 다><sup>30)</sup>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文化圈에는 文化價値가 전파되기 시작하 는 中心과 그곳에서 떨어져 있는 周邊 periphery 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文化圈에는 周邊의 문화적 관심이 지리적으로 인접 해 있는 곳을 제쳐놓고라도 멀리 문화의 中心地에 항상 관심을 쏟는 문 화적 <해바라기 現象>이 나타나게 되니 後者의 경우가 바로 周邊文化, 혹은 邊境文化 marginal culture 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sup>31)</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초두의 스페인은 확실히 西歐文化圈의 邊境이요, 이때 스페인에서 야기된 國粹主義的인 스페인주의자 hispani-zantes 와 유럽派 europeizantes 간의 갈등·투쟁은 바로 <해바라기 現象>의 스페인적 표현이라 하겠다. 스페인주의자와 유럽派간의 투쟁에 있어 서 당초부터 유럽派로서 兩派의 투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오르테가는 스페인이 <知的 慎重性이나 목표의 계속성, 혹은 협조 없이 아무 것이나 새로이 시작하는 아다미즘 adamism 의 숙명적 過誤에서 벗어나 知的 原理(철학을 포함한 순수과학)에 근거한 유럽(改革)의 가능성이 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던 것이다.<sup>32)</sup> 따라서 그는 스페인의 再生은 西歐化와 분리

29) *Ibid.*, pp. 11~2, 24~5; Arturo Barea, *Unamuno*, p. 29.

30) H. Stuart Hughes, *Consciousness and Society: The Reorientation of European Social Thought, 1890~1930* (New York: Vintage Books, 1958), p. 429.

31) 李用熙, 「韓日關係의 精神史의 問題——邊境文化意識의 葛藤에 대하여」, 『新東亞』, 1970년 8월호 참조.

32) F. Mora, *op. cit.*, pp. 17~20, 특히 p. 18. 참조.

시킬 수 없으며, 再生을 원한다면 西歐化는 이 願望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스페인이 課題라면 유럽은 그 解答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33)</sup> 그러나 근대 산업에 현혹된 西歐의 기술이나 제도——특히 정치 제도나 교육 제도의 경우——의 도입이 곧장 스페인의 모든 病弊를 치유하리라 고는 그는 결코 생각지 않았다.<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로서의 그의 활동은 아직도 계몽되지 않은 스페인의 知的 風土에서(대학 역시 진정한 문화적 중심으로서는 아직도 취약 했다) 專門化로 逸走하기보다는 스페인의 유럽화물 위한 하나의 迂迴路로서 대학 강의나 學術誌보다 저널리즘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다.<sup>35)</sup> 그리고 그의 철학은 方位定立의 學, 혹은 批評으로서의 철학이었 기에 이의 학문적 방법으로서의 제시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오르테가의 철학은 解題類의 哲學的 體系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설득시키고 主題를 반복해서 취급함으로써 그의 뜻을 독자들에 게 전달하는 開放的 體系를 가졌다고 F. 모라는 지적하고 있다.<sup>36)</sup>

이상에서 고찰한 오르테가 思想의 몇 가지 특징은 그의 사상이 갖는 兩棲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그 스스로 西歐文化圈의 중심인 독일의 文化를 통해 중심의 문화적 가치와 여러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서툴지 않으나, 그 자신이 출생 성장한, 그리고 그곳에 身命을 바쳐 려 하는 西歐文化圈의 邊境인 스페인의 문화가 內在해 있기에 여기서 생 겨나는 내부적 갈등은 심각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기에 오르테가는 당

33) Ortega, *La pedagogia social como programa politica* (1910) [『オルテ가著作集』, 2卷 pp. 367~8에서 再引用.]

34) F. Mora, *op. cit.*, p. 17. José Ortega y Gasset, *Über das römische Imperium* [Dei Imperio Romano, 1941], *Gesammelte Werke*, N, S. 459~60/Concord and Liberty (New York: W.W. Norton Co., 1946), p. 47.; Ortega, *Die Aufgabe der Universität* [Misión de la Universidad, 1930], *Gesammelte Werke*, III, S. 200/Mission of the University (New York: W.W. Norton Co., 1944), p. 30. (H. L. Nostrand의 『序文』은 Princeton Univ. Press에 의한 것이나 本文의 引用은 Norton의 版本에 의한 것이므로 특히 注意를 要한다.)

35) F. Mora, *op. cit.*, p. 12.

오르테가는 <사회의 참나적 현상의 표현>에 關心하는 言論의 缺陷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중에 스페인에서는 대학 교수의 급료가 제 극히 낮고, 독서 대중 또한 수적으로 적었기에 신문은 가장 보편적인 표현 媒體로서 널리 이용되었다. *Gesammelte Werke*, III, S. 245~6/Mission of the University, pp. 89~91; Arturo Barea, *Unamuno*, pp. 24~5.

36) 『オルテ가著作集』, 第4卷 p. 362; F. Mora, *op. cit.*, pp. 2~5, 13~4.





초기 회의 있을 때마다 장래의 研究課題와 방대한 著述計劃을 밝히고 학문적 體系化를 시도하나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기 전에 곧장 다른 主題로 옮겨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sup>37)</sup>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오르테가 사상의 이 같은 兩極的 特質은 그로 하여금 文化圈의 中心에서 베르그송이나 후설·B. 러셀 등과 같이 정연한 학문의 연구는 불가능하게 했으나 다윈과 프로이트의 *Juggernaut*가 인간의 합리적 이미지 *rational image*를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今世紀初에 유럽의 불안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이를 진단한 것이라 하겠다.<sup>38)</sup> 다시 말하면 오르테가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이러한 지식이 우리 시대의 諸價値에 대해 갖는 意義를 해석함으로써 그 탁월성을 과시한 것이다.><sup>39)</sup> 그리고 그의 이 예리한 통찰과 그 意義의 해석은 本稿가 증명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현대 사회의 大衆的 現象 바로 그것이다.<sup>40)</sup>

이에 本稿는 오르테가의 社會理論과 그의 大衆社會 및 大衆人의 개념을 그의 所論에 따라 정리하고 여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의 제거를 위한 그의 노력을 自己沈潛 *ensimismamiento*의 개념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 III. 오르테가의 社會理論

1) 社會理論의 必要性 오늘날 우리 인류가 겪는 역사적 고뇌의 대부분은 정치·국가·민족·법률·평화주의·主戰論·〈나의 祖國〉·社會主義·集團主義와 資本主義·自由主義 등 우리가 언제나 사용하면서도

37) 그의 主著인 『大衆의 反逆』이나 『갈릴레오에 관하여』는 그 末尾에서 새로운 이론의 전개를 암시하고 있으며, 『人間과 人間들』도 방대한 大著의 일부분을 그의 講演計劃을 통해 알 수 있다. 『オルテガ著作集』, 第5卷, pp. 332~4 참조.  
 38) Kenneth R. Hoover, "The Political Thought of José Ortega y Gasset," p. 233. <쥬그노>란 당초 비슈뉴 Vishnu 神의 제 8化身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인간이 가차없이 희생으로 바쳐지기도 하고 또 파멸되기도 하는 이론이나 신념·제도를 의미한다.  
 39) H. L. Nostrand, "Introduction," p. 15.  
 40) 오르테가와 같이 文化的 邊境에서 태어나 中心에서 교육을 받은 뒤 兩極的 特質을 나타내는 학자로는 헝가리 출신의 만하임 Kari Mannheim 과 폴란드 출신의 노이만 Franz Neuman 이 두드러진다.

그 의미가 분명치 않은 用語의 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用語를 신문이나 잡지는 물론이요, 회의 석상에서, 다방에서, 그리고 술집에서까지도 끊임없이 논의하고 열을 올리며, 때로는 이로 말미암아, 혹은 그것을 위해 적은 규모의 言語에서부터 크게는 혁명이나 전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sup>41)</sup>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하는 이 같은 苦惱와 狂亂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이는 바로 데카르트 이래로 明哲判明한 觀念에 의해서만이 思惟하고 행동하던 歐洲의 인류가 神話化한 이들 用語의 불분명한 개념에 현혹되어 혼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오르테가는 지적하고 있다.<sup>42)</sup> 그렇기에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마키아벨리—權謀術數를 의미하는 마키아벨리즘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가 패주하여 四散하는 군대를 再整備하여 전열을 갖추는 방법은 <旗幟 아래로 再集結하라 *Ritornare al segno*>는 것밖에는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이러한 混迷狀態에서의 탈출은 <神話로부터 明哲判明한 觀念으로 *von den Mythen zu den klaren und bestimmten Ideen zurückkehren*>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43)</sup>

이에 오르테가는 이들 모든 觀念들—法·法律·國家·國際性·集團·權威·自由·社會正義 등—이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것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社會的인 것이거나 社會 *die Idee des Sozialen, der Gesellschaft in sich schließen* 라고 말하면서 <社會的이란 것이 무엇이며, 社會란 무엇인가>의 해명이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한 가장 화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sup>44)</sup> 사실 社會나 社會的인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은 비교적 대단치 않은 主題로서, 또는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테마도 아니면서 지극히 곤란한 테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社

41) *Gesammelte Werke*, V, S. 7~8 [*Ensimismamiento y alteración*, 1939]/*Man and People*, 11~2.  
 42) 獨逸語全集版 第V卷에 수록된 前掲 <自己沈潛과 自己疎外>는 1939년 오르테가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文人聯合 Asociación de Amigos del Arte>에서 행한 6차의 連續講演 중 第1回分으로서, 이는 그의 遺稿로 1957년에 발표된 『人間과 人間들』의 第1章으로 나와 있다(따라서 本稿에서의 引用은 第1章 이외에는 英文版 *Man and People*에 의한다).  
 43) *Gesammelte Werke*, V, S. 31/*Man and People*, pp. 36~37.  
 44) *Ibid.*  
 44) *Gesammelte Werke*, V, S. 8/*Man and People*, pp. 12~3; *Man and People*, p. 37.



會)·〈社會的〉이란 것의 해명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개념의 근거로서 이 주제가 해명되지 않고서는 叙上한 그 어떠한 개념도 神話의 탈을 벗을 수 없다고 오르테가는 주장한다.<sup>4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社會)·〈社會的〉인 것의 해명을 위한 노력은 일반 대중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명한 사회학자들의 방대한 저술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음을 오르테가는 개탄하고 있다. 오르테가 자신 『無脊椎의 스페인』·『大衆의 反逆』 등을 발표하면서 〈社會)·〈社會的〉인 것에 대한 스스로의 無知를 의식하고 이 테마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쿵트·스펜서·베르그송·뒤르켐 등의 저서를 섭렵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가 얻은 것은 부끄러움과 충격이 혼회된 놀라움뿐이었다고 슬 회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들 사회학자들이 社會란 무엇이며 그들이 〈社會)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함이 없이 이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46)</sup>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社會哲學에 관한 大著를 구상하면서 1934년에 1935년에 걸쳐 마드리드대학의 形而上學講壇을 통해 〈歷史的 및 社會的 生의 構造〉란 세미나를 지도했으며, 1939년 이후로는 이러한 테마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묶어 출판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중대 완결을 보지 못한 채 그 일부만이 1957년 『人間과 人間들 *El hombre y la gente*』이란 遺稿로 발표되었다.<sup>47)</sup>

〈서로를 《考慮에 넣는 *reckoning with*》《相互性 *reciprocity*》을 社會的인

45) *Man and People*, p.37.

46) *Gesammelte Werke*, IV, S. 9~10/*Man and People*, pp.13~4.

그는 社會學의 創始者인 쿵트의 경우 그의 5,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著作의 어디에도 그 자신이 〈社會)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스펜서도 2,500페이지나 되는 그의 『社會學 原理 *Principles of Sociology*』(1876~96)에서 겨우 50줄 정도만 〈社會)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베르그송 역시 『道德과 宗教의 二源泉 *Les deux sources de la moral et de la religion*』(1932)이라는 사회학적 一試論에서 사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뒤르켐도 이 문제를 의식적으로 상세히 추구하기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7) 『オルテガ著作集』 第5卷, 解説, p.332 ff. 참조. 오르테가가 당초 계획한 著書의 내용은 그가 마리아스와 같이 설립한 〈人文研究所〉가 1949년에서 1950년에 걸쳐 행한 강의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 집적할 수 있었다. 즉 20講으로 구성된 同講座는 12講까지만 행해지고 『人間과 人間들』에 수록된 내용은 그 중 5講까지만이다. 그는 이 大著를 통해 國家·法律·社會的 階級·國民國家·國際國家·人類 등 사회학의 흥미있는 테마들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밝히려 했으나 이 形而上學的 大著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이다.

것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第一의 事實<sup>48)</sup>으로 보는 오르테가의 社會理論은 인간이 물질적 세계에서 존재하듯이 사회적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社會는 인간이 움직이고 存在하는 要素 *an 'element' where man 'moves and is'*로서 物質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慣習·習慣·規範 등을 통해 압력을 주게 마련이라고 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社會이거나 그 본질의 이해를 위해 慣習은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는 것이다.<sup>49)</sup>

사실 社會的 實在란 본질적으로 은폐된 內密한 것이기에 社會의 概念化란 쉽지 않은 것이며, 그것이 바로 社會學의 발전을 遷延시킨 것이다. 오르테가는 말하고 있다.<sup>50)</sup> 그러나 그는 로마나 近代 유럽과 같은 특정한 사회의 연구는 조만간 이들 사회의 공통적 특징을 이해케 함으로써 그 概念化가 가능하나 그 같은 〈사회〉의 개념은 비록 어느 정도의 同一性을 항상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사회에 따라 그의 미가 달라지는 《隨時的 概念 *occasional concept*》일 수밖에 없다<sup>51)</sup>는 것이다.<sup>52)</sup>

이제 우리는 相互性의 문제로서 인간과 환경, 世界의 구조, 他者 *other man*의 출현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압력의 한 형태로서 慣習과 世論의 문제를 오르테가의 『人間과 人間들』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그의 社會理論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나의 生과 環境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상실한 사실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스스로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비극적 宿命이긴 하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 인간의 가장 빛나는 特權이기도 하다. 이때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實在란 근원적 實在 *radical reality*, 즉 우리의 生, 人間의 生이다.<sup>53)</sup> 그리고 이 같은 人間의 生에 대한 우리들의 근본적 지식은 이 生이 등장하여 자리잡은 위치와 방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 위에서만 충분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根源的 實在로서의 우리의 生, 즉 〈나 자신의〉 生이 存在 *exist*

48) *Man and People*, p.103.

49) F. Mora, *Ortega y Gasset*, p.68.

50) *Man and People*, p.182.

51) F. Mora, *Ortega y Gasset*, pp.67~8, 70.

52) *Man and People*, p.38.





한다는 것은 存在를 위한 鬭爭과 交戰狀態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간에 우리 앞에 外在하고 *ex-ists*, 反抗하는 *resists* 것을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는 *have to reckon with* 것이다.<sup>53)</sup> 이처럼 인간적 生, 즉 우리들의 근원적 實在에는 이에 수반하는 수많은 특질을 부여할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生이 그 가운데 존재하게 마련인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境界로서의 구체적 環境이다.<sup>54)</sup> 다시 말하면 <인간적 生은 生을 영위하기 위해 세상과 항쟁하며 그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sup>55)</sup>

그렇기에 오르테가는 우리의 生이 하나의 實在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두 개의 용어로서, 생활하는 인간과. 좋은 싫든 인간이 그 가운데서 생활하는 世界 또는 環境을 지적하고 있다.<sup>56)</sup> 이러한 사실은 환경이 우리들 生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한 <나는 나와 나의 환경이다 *Yo soy yo y mi circunstancia*>라는 그의 유명한 命題를 통해 그의 모든 철학적 입장을 관통하고 있다.<sup>57)</sup>

그러나 오르테가의 <나는 나와 나의 환경이다>라는 命題는 生이 바로 환경의 일부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 살도록 마련된 馮나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周圍가 우리의 生을 매물시키지 못하도록 항상 이에 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58)</sup>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으나 이 환경은 우리가 적면하는 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뿐이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獨創性이나 自由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sup>59)</sup>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生에 있어서의 모든 決斷이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며, 그 決斷은 가장 고독한 상황에서 決行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實在란 <인간과 그 환경간의 永續的인 對話

53) *Ibid.*, p. 41.

54) *Ibid.*, pp. 41~2.

55) F. Mora, *Ortega y Gasset*, pp. 44~5.

56) *Man and People*, pp. 51, 60~6; *Gesammelte Werke*, III, S. 401, 403~4/*Man and Crisis*, pp. 24, 27.

57) 『オルテガ著作集』, 第1卷, p. 32 [*Meditaciones del Quijote*, 1914]; F. Mora, *Ortega y Gasset*, pp. 25~6.

58) *Gesammelte Werke*, III, S. 517~8.

59) K. Hoover, "The Political Thought of José Ortega y Gasset," pp. 235, 238.

*the eternal dialogue between a man and his circumstances*>일 뿐이다.<sup>60)</sup>

그리하여 근원적 實在로서의 인간의 生은 (1) 당초부터 나의 것으로 個人的이며 [*personal*], (2) 환경을 考慮에 넣고 살며 [*circumstantiality*], (3)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기에 매순간마다 當惑과 歧路에 직면하고 [*freedom=responsibility*], (4) 他人에게 讓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나에게 의미 있는 生이 되어야 한다 [*untransferable*]. 따라서 이 같은 인간적 屬性을 갖추지 못한 인간은 본래적 原初的 의미에서의 인간이 아닌 것이다 [*non-human, in-human*].<sup>61)</sup>

한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 앞에 명백히 전개된(혹은 그 뿐만 아니라) 환경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채 잠재된 거대한 세계의 일부 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 세계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 事物이 존재하는 前景 *foreground*이 있고, 事物이 나타나는 視界의 地平線으로서 中距離가 있으며, 현재 은폐되어 있는 遠距離의 三面으로 구성되어 있다.<sup>62)</sup>

이상과 같은 環境과 世界의 構造를 오르테가는 다음과 같은 4개의 法則으로 정리하고 있다.<sup>63)</sup>

第1法則 生的 世界는 現時點에 존재하는 약간의 物과 지금 바로 눈 보이지 않는, 잠재하는 수많은 物로 구성되어 있다(후자는 可能性).

第2法則 物은 그 자체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는(그리하여 物을 浮刻시키는) 背景物과 함께 나타난다(후자는 地平線).

第3法則 그 가운데 있는 모든 物과 함께 세계는 여기서 *here* 부터, 나에게 있어서는 *for me* 그렇다는 식으로 자동적으로 하나의 퍼스펙티브가 된다(遠近 및 上下가 나타난다).

第4法則 肯定的 혹은 否定的 奉仕로서의 物은 전쟁·사냥·예술·종교 등과 같은 奉仕性 *serviceability*의 建造物을 구축키 위해 서로 連繫

60) *Man and People*, pp. 43~4, 46; *Gesammelte Werke*, III, S. 399~400/*Man and Crisis*, p. 23; F. Mora, *Ortega y Gasset*, p. 62; Helene Weyl, "José Ortega y Gasset," pp. 476~7.

61) *Man and People*, pp. 58~9.

62) *Ibid.*, p. 67.

63) *Ibid.*, pp. 65~6, 74, 80.

되어 있다(실용적場이나場所).

그리고 生의 세계에서 物과 우리들의 實質의인 관계는 결코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力學的 關係인 것이다.<sup>64)</sup>

3) 他者の 出現과 相互性 인간은 근원적인 實在로서의 개인적 生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周圍環境과 世界에 직면했으나 그 인간은 전혀 개인적이고, 환경과의 연관하에서 자유롭기는 하나 양도할 수 없는, 生에 천적으로 책임을 지는 고독한 生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他者 the other 에게 보임으로써 脫孤獨化 de-solitudenizing 를 시도하게 된다. 이 같은 인간의 他者와의 交通欲求에 대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돌이나 식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기계적이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2次로 나타나는 동물 역시 共存 co-existence 은 하나 그 交通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지극히 풍부한 표현력을 갖춘 인간이다.<sup>65)</sup>

그러나 他者로서의 인간은 그가 비록 우리에게 그 內面性이나 親近性으로 접근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現前 presence 이 아니라 사과의 다른 一面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共現前 com-presence 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66)</sup> 다시 말하면 他者の 生은 나의 밖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生을 넘어서 超越的인 것으로서 一義的이고 현실적인 나의 生, 나의 世界와 비교해 보면 그것은 第2의 實在에 불과하다.<sup>6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他者は <나와 꼭같이 反應을 나타내는>, 따라서 <서로를 《考慮에 넣는》 相互性>을 가지게 되니 여기서 우리는 나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인간이 상호 작용하면서 존재하는 人間社會, 즉 <社會>를 구성하게 된다.

바로 현재의 세계—즉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들이 같이 산다는 것, 다만 他者에게 開放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他者에게 행동을 취함으로써 他者가 상호적으로 반응케 하는 것, <나와 他者>가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性 we-ity, nostrism 이요, 이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바로 최초의 사회적 實在이다. 즉 내가 마침내는 他者の 相互性을

64) *Ibid.*, pp. 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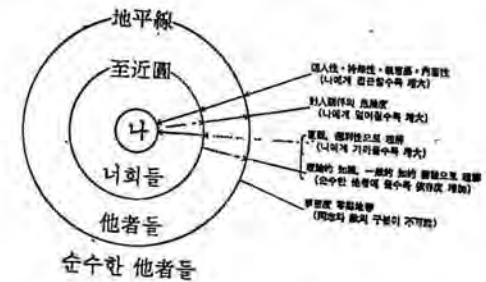
65) *Ibid.*, pp. 84~93.

66) *Ibid.*, pp. 92, 64~5.

67) *Ibid.*, pp. 95~7.

인정하며 他者도 <當初부터 ab initio> 相互性을 갖는 者일 때, 이것이 바로 본래적인 의미에서 <社會的>이라는 것이다.<sup>68)</sup>

그러나 이 社會는 아직까지도 나에게 는 내가 아닌 not-I 他者, 異邦人들로 형성된 객관적 세계, 즉 모든 인간이 모여서 형성한 사회다. 따라서 이 사회에는 同志와 敵이 공존하는 사회로서 긍정적인 의미와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도 갖게 되니 여기에 인간의 親疎關係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sup>69)</sup>



親疎의 퍼스펙티브

인간 세계는 인간성의 遠近의 퍼스펙티브다. 즉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단수나 복수의 他者 가운데—즉 인간 세계, 혹은 사회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인간은 먼저 他者에게 자기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스스로에 順應 cor-responding 하나 이것은 아직 <社會的 關係>는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他者の 反應을 挑發키 위해 행동하고, 나아가 他者와 함께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關係를 형성하니 이것이 최초의 사회적 관계다. 그러나 이 단계는 아직 共生 co-live 이므로 한결음 더 나아가 친밀감과 내면성을 증대시킴으로써 他者가 특수한 개인이 될 때 他者は <우리>를 형성하고 <너>가 된다. 이리하여 친밀하고 개인적인 너희들로 충만된 가장 가까운 圓이 인간의 지평선(인간 세계)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까운 圓에서부터 지평선까지는 본질적으

68) *Ibid.*, pp. 103, 109, 140.

69) *Ibid.*, pp. 142~4, 146, 151; *Gesammelte Werke*, V, S. 430~1; F. Mora, *Ortega y Gasset*, pp. 70~2.



로 위험한 他者들이 존재하고(너희들에 가까와지면 위험도는 下降) 그 바깥에는 同志와 敵의 구별이 불가능한 순수한 他者들 *pure others* 이 존재하는데 이곳이 바로 親密度的 零點地帶 *zero point of intimacy* 다. 한편 인간의 이해는 나에게 가까울수록 直觀과 個別性を 통해 이루어지나 나에게서 먼 他者일수록(친밀도가 零點地帶에 가까와지면) 이론적 지식이나 일반적 지적 체험을 통해 이해하게 된다(圖表 참조).<sup>70)</sup>

한편 이 같은 他者の 존재와 親疎의 퍼스펙티브가 나에게서 멀어질수록 異質적이고 危險度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의 탐색 내지는 鈍化를 위해 생겨난 人事가 문명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라고 오르테가는 지적하고 있다.<sup>71)</sup>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근원적 實在로서의 인간의 생은 그 자신의 생을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고독한 것이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孤獨 *Einsamkeit* 이 他者の 근원적인 孤獨에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의 一員이 되고자 하는 것 *Gemeinsamkeit* 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마침내 개인과 개인의 관계, 즉 對個人的 關係 *inter-individual relation* 를 형성하게 된다.<sup>72)</sup> 오르테가에 있어서의 對個人的 關係란 <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인간적 생의 대표적 실체로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각 개인은 인간적 생의 근원적 고독에서부터 벗어나 他者の 근원적 고독에 도달하려는 것이다.><sup>73)</sup> 그러므로 오르테가에 있어서의 對個人的 關係는 眞正한 인간적 생과 사회적 因習에 의해 非人間化되어 버린 擬似生 *pseudo-life* 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고리 *link* 인 것이다.<sup>74)</sup>

사실 인간은 他者の 출현에 의해 이 세계의 나머지 부분은 물론이요 나의 생, 나 자신까지도 他者를 통해서 조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근원적 實在로서의 나의 생은 因習을 통해 他者の 操作, 他者の 견해에 의해 가려지니 인간은 여기서 그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人間性を 放棄함

70) *Man and People*, pp. 153~8, 146~7, 151~2, 157.

71) *Ibid.*, pp. 204~5, 215~6, 218.

오르테가는 人事를 慣習의 하나로서 중요한 사회학적 의미를 갖는 현상으로 간주, 이 둘 비교적 상세히 논구하고 있다.

72) *Gesammelte Werke*, III, S. 446~7/*Man and Crisis*, pp. 76~7; *Man and People*, pp. 177~8.

73) *Man and People*, p. 178.

74) F. Mora, *Ortega y Gasset*, pp. 73~5.

으로써 非人間化된 무책임한 人間 *die Leute* 이나 大衆 *die Masse* 으로 생활하게 된다.<sup>75)</sup> 여기에서 오르테가는 나의 孤獨, 나의 眞正性이 사랑을 통해 他者の 신비적 內面世界와 융합될 수 있는 사회 관계로서 對個人的 關係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76)</sup>

4) 慣習과 世論.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은 他者와의 相互性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인간 세계는 나의 세계의 퍼스펙티브에 있어서 제1의 局面, 혹은 前面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나의 세계의 다른 부분은 물론이요, 나의 생, 나 자신까지도 他者를 통해서 眺望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그 스스로를 위임하는 他者란 무엇인가. 즉 누가 <그렇게 말한다> 혹은 <그렇게 말해진다 *se dice, are said, on dit*> 할 때의 <사람>·<사람들>·<그>는 특정한 主體가 아닌 기묘한 非人稱으로서의 <모든 사람 *everybody*>으로 실제로는 그 누구도 아닌 *nobody* 非人間的인 사람 *inhuman man*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社會·集團 등과 같은 不特定の 무책임한 主體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회적 自動人形 *automaton* 이 되고 만 것이다.<sup>77)</sup>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자신의 본래의 個性的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社會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악수로서 대표되는 人事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人事 *salutation*(당초 건강을 기원한다는 뜻이다)로서의 악수는 (1) 인간 존재로서의 내가 수행하는 *execute* 행위의 하나며, (2) 내가 수행한 하나 그것은 사람들 *people* 로부터 그렇게 해온 것 *being done* 이므로 나도 한다. 즉 어느 특정인에게도 속하지 않는 個人外的 *extraindividual*

75) *Man and People*, pp. 144~6, 174~5; *Gesammelte Werke*, III, S. 408, 461/*Man and Crisis*, pp. 32, 93.

물론 인간이 최대의 眞正性 *authenticity* 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에도 인간의 생은 그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따르는 因習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음은 事實이다. *Man and People*, pp. 145~6, 173.

76) *Man and People*, p. 223; *Gesammelte Werke*, III, S. 460/*Man and Crisis*, p. 92; F. Mora, *Ortega y Gasset*, pp. 74~5.

이러한 오르테가의 입장을 K.R. 후우버는 인간주의와 개인주의의 가치물 他者에 投射한 것이라 말하고, 이것이 바로 그르 하예금 파시즘이나 에너키즘에 빠지지 않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Kenneth R. Hoover, "The Political Thought of José Ortega y Gasset," p. 233.

77) *Gesammelte Werke*, III, S. 460/*Man and Crisis*, pp. 92~3; *Man and People*, pp. 144~5, 173, 182~4, 173~4.



인 데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3) 내가 그 행위의 창시자가 아닐 뿐 아니라 내 **自意**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며, (4) **主體**에 대한 **知的意味**나 **意志**가 결여된 기계적 비인간적 운동에 불과하다.<sup>7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연회 석상이나 회의에서, 거리에서나 다방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언제나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들은 **人事**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인간 행위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sup>79)</sup>

첫째, 우리에게 의해서 수행되는 행동은 **無名의 個人外的인** 기원을 갖는다.

둘째, 우리들이 수행하는 행동은 **自意的이고 自發的인** 것이 아니다. 셋째, 우리들이 악수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기에 **非合理的**이다.

인사를 통해 나타나는 인간 행위의 이 같은 특징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그 속에서 생활하게 마련인 **慣習 uso, usage**에 대한 인간의 태도, 바로 그것이다.<sup>80)</sup> <慣習은 習慣이며, 習慣은 一定形態의 행동 양식, 습관화된, 즉 학습된 행동의 형태이다. 따라서 慣習은 하나의 사회적 習性이다. 習性은 자주 반복됨으로써 개인 가운데 自動化된 행위로서 기계적으로 산출되며 기능한다.><sup>81)</sup> 따라서 잦은 반복을 통해 개인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기능하게 된 慣習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 사회적인 것이다.<sup>82)</sup> 왜냐하면 사회는 이러한 慣習에 익숙해 있고, 또 이를 常用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바로 이들 慣習을 서로 엮어맨 하나의 거대한 建造物이다.<sup>83)</sup>

78) *Man and People*, pp. 168~7.

79) *Ibid.*, pp. 188~9.

80) *Ibid.*, pp. 191~2. 慣習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그 속에서 생활하는 환경이요 세계>며, 우리는 <경생로복 慣習의 囚人이요 奴隸>라고 오르테가는 표현하고 있다.

81) *Ibid.*, p. 192.

82) *Ibid.*, p. 194. 그러나 慣習이 반드시 자주 반복되어 개인 가운데서 自動化되지 않은 예로 오르테가는 로마의 *ludi saeculares* 라는 종교적 遊戯를 들고 있다. 이 遊戯는 한世紀의 終了를 기념하는 祭典으로서 자주 반복되지도 않으며, 一個人이 2次의 祭典參加도 불가능하기에 관습은 반복이나 개인과는 無關하다고 말하고 있다.

83) *Ibid.*, p. 221; F. Mora, *Ortega y Gasset*, p. 72.

한편 오르테가는 환상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독특한 공동 생활의 특징과 전달 형태로서 言語를 갖는다고 말하면서 慣習의 一形態로서 言語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Man and People*, pp. 249~51, 203, 228~32; *Gesammelte Werke*, V, S. 416/*Concord and Liberty*, p. 13.

한편 이 慣習의 준수는 慣習 자체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사회를 구성하는 個人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과되는 것이기에 많고 적은 개인이 그것을 지키려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慣習에의 거역, 또는 逆行은 정신적 압력이나 危害라는 간접적 형태의 <사회적 힘>으로 나타나지만 이의 종국적 형태는 바로 폭력·강제·처벌이다.<sup>84)</sup>

그리고 慣習의 폐지 및 변경은 慣習 자체가 지극히 천천히 형성되고 *tempo lento* 이를 축적하는 사회 역시 근본적으로 時代錯誤의이기에 새로운 慣習이 비록 낡은 慣習보다 나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改變은 <언덕을 平地로> 만드는 것처럼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慣習의 변경을 위해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경우나, 사회로부터 도피하여 새로운 생활을 하면서 慣習을 변경시키려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sup>85)</sup>

한편 慣習과 같이 이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에게 압력과 강제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世論 öffentliche Meinung, public opinion*<sup>86)</sup>이 있다.

이 세상에 충만한 수많은 견해와 의견은 오르테가에 의하면 지배적인 유력한 意見 *prevailing opinions* 과 개인적인 특수한 意見 *private opinions* 으로 二分할 수 있다고 한다. 전자가 自明하고 萬人에 의해서 수용되는 데 대해 후자는 전자에 반대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견이다. 따라서 前者는 그것이 지켜지는 한 그것을 유지 보호하는 데 이렇다할 힘이 들지 않으나 後者는 그것을 지지하는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sup>87)</sup> 여기서 전자, 즉 유력한 意見이 世論이니 이는 인간 사회의 지배 현상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힘으로써 오르테가는 이를 政治史의 萬有引力의 法則이라고 지칭하고 있다.<sup>88)</sup> 다시 말하면 그는 支配 *Herrschaft* 그 자체가 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世論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古代에서부

84) *Man and People*, pp. 266~7, 196~7, 269~70.

85) *Ibid.*, pp. 209~12.

86) 輿論이라고도 表記할 수 있겠으나 오르테가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상적 입장을 감안하여 우선 世論이라고 번역한다.

87) *Ibid.*, pp. 264~6.

88) *Gesammelte Werke*, III, S. 102~93/*Revolt*, p. 97.

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世論의 至上權 *die Souveränität der öffentlichen Meinung* 은 어느 시대에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sup>89)</sup> 물론 특정한 시기에는 특정한 인간이나 집단이 世論을 지배했으나 世論에 반대되는 지배란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世論의 분열 및 공백은 광포한 힘에 의한 혁명을 수반하기 때문이다.<sup>90)</sup>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世論이란 그 자체가 거창한 의견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확립된 의견으로서 有効性을 발휘하자면 당초의 明白함·眞正性·時宜性 등과 같은 卓越性을 상실하고 平凡化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sup>91)</sup>

오르테가는 慣習을 크게 나누어 비교적 취약하고 산만한 慣習 *weak and diffuse usages* 과 강하고 엄격한 慣習 *strong and rigid usages* 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거니와 지금까지 살펴본 慣習과 世論은 前者에 해당하며 法律이나 國家 등과 같이 정치 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sup>92)</sup>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의 준수는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개인이 직면하는 絕對權力으로서의 社會가 나타나니 社會는 慣習의 總體로서 우리를 위압하고, 우리는 社會를 우리를 보호해주는 權威로서 느끼게 된다. 따라서 慣習에서의 逸脫이 世論에 의해서 규제되는가 하면, 世論은 바로 이 絕對權力을 배경으로 하여 그 權威를 행사하는 것이다.<sup>93)</sup>

#### IV. 大衆의 反逆과 大衆人

1) 現代的 狀況에 대한 오르테가의 批判 19세기 後半의 기술적 진보는 전통적 질서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킨 힘

89) *Gesammelte Werke*, III, S. 102~4/ *Revolt*, pp. 97~8.

90) *Gesammelte Werke*, III, S. 104~5, 103/ *Revolt*, pp. 99, 98.

91) *Man and People*, p. 265, 215.

92) *Ibid.*, pp. 213~5, 225.

오르테가는 國家·法律 등 後者に 속하는 慣習의 研究를 예정했으나 그의 死亡으로 그것은 종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本稿에서의 연구도 자연 前二者에 한정되지 않을 수 없다.

93) *Ibid.*, pp. 268~70.

명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前時代의 제반 기술적 진보는 平均人, 즉 사회적 大衆의 물질적 생활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전까지 극히 少數者의 특권이었던 정치적 사회적 권리까지도 普遍化시켰다.<sup>94)</sup>

사실 19세기 후반 이후의 인간적 상황은 물질적으로는 그 이전까지 사회의 최상층 소수자에게만 국한되었던 여러 가지 富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으며,<sup>95)</sup> 시민적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특권자의 모든 장벽이 제거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平均人 *Durchschnittsmensch, average man* 은 사회생활의 諸般 형태에 있어서 나면서부터 아무런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法律 앞에 萬人이 평등임을 알게 되고, 사회에는 아무런 身分이나 階層도 없으며 법률상의 특권도 존재하지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sup>96)</sup>

더욱이 현대 사회의 全地球를 포함하는 공간적 확대와 매스 미디어와 교통 수단의 발달에 따른 시간의 同時性 및 단축은 有限한 인간의 生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事物의 수는 극도로 증대되어 그들이 살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이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事物의 부단한 購買, 사용이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sup>97)</sup> 그렇기에 현대의 生은 양적으로 증가되고 그 潛在的可能性 *Potentialität* 도 증대된 시대의 頂點으로서의 近代의 生이다.<sup>98)</sup>

사실 오늘날의 인간은 과잉된 豊饒 속에서 모든 수단을 마음대로 구사하는 가장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만족하는 인간 *zufriedende junge Herr*〉으로서 그 生을 향유하고 있는

94) *Gesammelte Werke*, III, S. 44, 16~7/ *Revolt*, pp. 43, 17~8.

95) 富의 普遍化의 一例로서 오르테가는 1820년의 파리에 있는 裕室이 딸린 개인 주택이 단 10여 채에 불과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는 물질적으로 귀족적이었던 것의 보편화로서 매우 상징적이다. *Gesammelte Werke*, III, S. 16, / *Revolt*, p. 17.

96) *Gesammelte Werke*, III, S. 43/ *Revolt*, p. 42.

97) *Gesammelte Werke*, III, S. 29~30/ *Revolt*, pp. 29~30.

98) *Gesammelte Werke*, III, S. 33, 31, 34~5/ *Revolt*, pp. 33, 31, 34.

오르테가는 〈近代 *modern*〉·〈近代性〉이란 최중적 결정적인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른 시대는 모두 과거로서 近代를 향한 준비며 願望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낡은 것보다 뛰어난 새로운 生의 意識이요 시대의 頂點에 있으라는 하나의 命命이라고 한다.

*Gesammelte Werke*, III, S. 24/ *Revolt*, p. 25.

것이다.<sup>100</sup>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의 인간이 이 같은 豐饒 속의 安定 가운데서 그것이 직면하는 정신적 苦惱를 의면하려고 하는 사실이다. 현대인에게 허용된 모든 잠재적 가능성은 그 가운데 最惡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sup>100</sup> 더우기 현대 문명의 발전이 그 量的 增大에도 불구하고 質的 增大, 즉 정신적 가치의 발전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현대 사회가 직면한 불안과 새로운 地杼의 전개를 암시하는 것이다. 大衆은 자동차나 의상의 새로운 모형에 대해서는 비상한 흥미를 나타내지만 인간 사회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해졌으니 기본적 人權이나 市民權은 그것을 짓밟는 者에게도 普遍化되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 規範도 마치 애초에 그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不道德의 行爲가 日常化되어 모든 사람은 不道德을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위에 精神科學은 물리적 현상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낙후되었으니 현대 문명은 그 문명의 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서 스스로를 상실한 인간에 의해 沒落의 危機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sup>101</sup>

우리들의 세계에서 무엇인가가 변화하거나 *wenn sich etwas in unserer Welt verändert*, 세계 자체가 변화할 때 *wenn sich die Welt verändert* 생겨나는 역사적 변화로서의 危機는 시대의 頂點으로서의 우리 시대가 지금까지 의존하고 있던 前時代의 信念體系로부터 새로운 體系, 새로운 것 출애로의 이행에 수반하는 혼돈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다.<sup>102</sup>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인간은 전통적 規範과 思想이 틀린 것만 알고 그것이 가진 오류만 지적할 뿐 그것에 대처할 새롭고도 적극적인 信念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다할 定處 *der Lageplan* 없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기술적 진보와 사회 조직이 가져다 준 갖가지 生活樣式을 그

99) *Gesammelte Werke*, III, S. 81/*Revolt*, p. 77; *Gesammelte Werke*, V, S. 21~2/*Man and People*, pp. 26~7.

100) *Gesammelte Werke*, III, S. 34/*Revolt*, p. 34.

101) *Gesammelte Werke*, III, S. 64, 33, 16~7, 153, 71~2/*Revolt*, pp. 61~2, 33, 17~8, 142, 68~9; *Gesammelte Werke*, II, S. 85(*El tema de nuestro tiempo*, 1923); *Gesammelte Werke*, III, S. 475/*Man and Crisis*, p. 110; 『프랑스인을 위한 序文』(『大衆의 反逆』佛蘭西版序文), 『オルテガ著作集』, 第2卷, p. 19; Helene Weyl, "José Ortega y Gasset," pp. 459, 478~9; K.R.Hoover, "The Political Thought of José Ortega y Gasset," p. 239.

102) *Gesammelte Werke*, III, S. 453, 443, 455/*Man and Crisis*, pp. 85, 72, 86.

자신의 內的 리듬 *Lebensrythmus*과는 상관없이 확보하려고 腐心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不誠實한 예술적 流派나 主義主張, 그리고 정치 활동을 통해 진정한 인간적 生에서의 도피를 시도하게 된다.<sup>103</sup>

더우기 국가의 관료주의화·군사화는 사회 일반에 安定을 가져다 주지만 이 安定은 유례없이 막강한 정부와 公權力 *öffentliche Macht* 을 구사하는 大衆의 支配를 낳게 되는 것이다.<sup>104</sup>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겠지만 이들 大衆은 生에 이렇다할 목적도 없이 浮遊하면서 그 全能하고 일시적인 公權力을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회피에 사용하고 있으니, 그들은 비록 미래에 더 큰 곤란을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現場에서의 도피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대중 지배의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계는 대중에 의해 모든 것이 형태지어지고 그의 原始的 스타일에 걸맞는 방법만이 사회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平均的〉 基準 그것이 바로 사회 지배의 척도가 된 것이다.<sup>105</sup>

여기에 현대의 西歐 사회는 그 〈狀況의 多樣性〉과 生命力을 상실하게 되니 20세기 초두의 西洋의 지식인들은 그들 문화의 몰락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역사상 다른 시대가 갖지 못한 거대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만들어야 할 줄을 모르는, 즉 모든 事物의 主人이면서 그 스스로의 主人이 되지 못하는 통절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1918년에 발간된 시팽글러의 『西歐의 沒落』은 당시 사회에서 커다란 共感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sup>106</sup> 그러나 기술적 效率性에 근거한 문명 *technicism*의 시대가 문화를

103) *Gesammelte Werke*, III, S. 455, 475, 454/*Man and Crisis*, p. 86, 110, 84; *Mission of the University*, p. 14 (*Gesammelte Werke* 에는 英文版의 第1章, pp. 13~23이 수록되지 않았다); *Gesammelte Werke*, III, S. 21~22, 38/*Revolt*, pp. 23, 37; *Gesammelte Werke*, II, S. 85 (*El tema de nuestro tiempo*).

Fritz Pappenheim, *The Alienation of Modern Man; An Interpretation Based on Marx and Tönnie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59) 및 前掲 拙稿『人間疎外論研究』(I)·(II)도 참조하라.

104) *Gesammelte Werke*, III, S. 98, 38/*Revolt*, p. 97, 37.

105) *Gesammelte Werke*, S. 37~8, 76/*Revolt*, pp. 37~8, 73; K.R.Hoover, "The Political Thought of José Ortega y Gasset," p. 239.

106) 『프랑스인을 위한 序文』, 『オルテガ著作集』, 第2卷, pp. 34~5; *Gesammelte Werke*, III, S. 33~4, 107/*Revolt*, pp. 33, 101. H.S. Hughes, *Consciousness and Society*, pp. 371~2, 375~9도 참조.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뮬글러에 비해 현대를 문화의 일반적인 원칙에 '덜 광하지 못하는 대중 지배의 시대'라고 보는 오르테가는 그 스스로가 지적하듯이 시뮬글러보다 훨씬 비판적인 歷史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107)</sup>

이에 우리는 오르테가가 말하는 현대 사회의 大衆支配 현상과, 이 大衆을 형성하는 개개 分子로서의 大衆人 *der Massenmensch*<sup>108)</sup>의 심리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大衆의 反逆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大衆의 출현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급격한 인구 증가와 기술의 발전, 자유민주주의의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오르테가는 지적하고 있다.<sup>109)</sup> 사실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인구 증가의 加速性은 양적으로 증가한 大衆을 전통 문화에 浸潤시키지도 못한 채 곧장 근대 생활의 기술을 익히게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大衆은 정신이 고갈되고 전통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현대 사회의 새로운 支配勢力으로 등장하게 되었다.<sup>110)</sup>

오르테가에 있어서 民衆·公衆·群衆 등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大衆 *masa* 이란 프롤레타리아트나 특정한 社會階級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대표자로서 모든 社會階級 가운데서 발전되는 無定見하고 非人格의인 懶怠한 *träge, inertia* 人間類型을 가리키는 것이

107) *Gesammelte Werke*, III, S. 65/*Revolt*, pp. 62~3.

한편 K.R. 후버는 오르테가가 현재적 조건에 지극히 비판적이거나 그러한 失望에 適當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K.R. Hoover, "The Political Thought of José Ortega y Gasset," p. 240.

108) 이는 <大衆의인 人間>으로도 번역될 수 있겠으나 오르테가에 있어서의 大衆이 전혀 사회학적 개념인데 대해 <大衆人>은 大衆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으로서, 大衆 혹은 人間이 내포하고 있는 覆數의 개념보다는 大衆을 구성하고 있는 일정한 성격을 가진 個個의 分子로서의 人間(즉 單數로서)이란 뜻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기에 <大衆人>이란 複合語를 사용했다.

109) *Gesammelte Werke*, III, S. 38~9, 86~7/*Revolt*, p. 38, 82.

오르테가는 이러한 인구 증가의 추세를 6세기부터 1800년에 이르는 12세기간의 유럽 인구가 1억 8천만 미만인 데 대해 1800년부터 1914년까지의 유럽인구는 4억 6천만으로 증가되었다는 콰르트의 所論을 인용·지적하고 있다.

110) *Gesammelte Werke*, III, S. 39~40/*Revolt*, p. 39.

한 사회나 국가 안에서 특정한 社會集團이 數의 증가나 역할의 高擧에 의해 사회적 비중이 증가하면 그것은 사회적 勢力으로 성장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권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임을 오르테가는 古代 로마에서의 平民 *plebs*의 성장 과정을 통해 상정한 바 있다. "Über das römische Imperium," *Gesammelte Werke*, IV, S. 414~60, 특히 S. 451, 459/*Concord and Liberty*, pp. 39~46.

다.<sup>111)</sup> 이들 大衆은 19세기의 기술적 산업적 발전이 가져다 준 기구나 제도의 운용 방법을 배움으로써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생활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들을 고안하고 설립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지적 노력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大衆은 이 같은 노력이나 恩惟가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선물이 아니라 고되고도 어려우며,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획득물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자신이 이미 축적하고 있는 思想만이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知的 閉鎖性의 메커니즘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sup>112)</sup> 그리하여 그는 그 자신의 知的 教養에 안주·자족하면서 외부적인 권위에서의 복종이나 봉사, 義務에 대한 意識이 전혀 결여된 非道德 *Unmoral*의 인간으로 변해 버린다.<sup>113)</sup>

이제 大衆은 지금까지 少數者에게만 국한되었던 생활 분야를 그들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少數者에게 不服할 뿐만 아니라 이들 少數者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세계와 생이 그 實在을 平均人 *der Durchschnittsmensch*에게 개방하는데 대해 平均人은 오히려 그들의 魂을 스스로 폐쇄함으로써 자기 자신 이외의 事物이나 인간에 무관심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不服從의 태도를 취하게 되니, 여기에 오늘날 우리 인류는 大衆의 反逆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sup>114)</sup>

오르테가에 의하면 <社會란 모범적인 者와 거기에 복종하는 者로 형성된 動的이고도 정신적인 統一體라고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란 그것이 생겨나면서부터 범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生得的으로 고귀한 사람의 引力에·끌려가는, 즉 模範에의 順從 *Gehorsam*을 전제로 하는 <完成된 機關 *ein Werkzeug der Vervollkommung*>이라고 한다.<sup>115)</sup>

111) *Gesammelte Werke*, III, S. 51, 87/*Revolt*, pp. 49, 89; M. Maldonado-Denis, "Ortega y Gasset and the Theory of the Masses," p. 246; 『オルテガ著作集』, 第5卷, p. 335.

112) *Gesammelte Werke*, N, S. 23/*Man and People*, p. 27; *Gesammelte Werke*, III, S. 54/*Revolt*, p. 52.

113) *Gesammelte Werke*, III, S. 155/*Revolt*, p. 52.

114) *Gesammelte Werke*, III, S. 16, 53/*Revolt*, pp. 17, 50~3.

115) "Aufbau und Zerfall Spaniens" [*España invertibrada*, 1921], *Gesammelte Werke*, II, S. 56/『無脊椎のスペイン』, 『オルテガ著作集』, 第2卷, p. 332 (이하 『無脊椎』로 略稱).



따라서 사회에 관한 가장 근본적 사실은 사회가 몇몇 사람이 모여서 형성된 단순한 集合 *der bloße Zusammenschluß*이 아니라 지도되는 者와 인간 집단을 지도하는 者로 分割되어 있다는 점이다.<sup>116)</sup> 이러한 사실은 비단 정치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문제에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大衆은 탁월한 자에의 追從이라는 그 자신의 運命을 저버리고 스스로의 行動權을 주장하는 大衆의 反逆을 기도하게 되니 우리 인류는 이제 전혀 새롭고도 예견할 수 없는 인간적 秩序 (*eine neue, ungeahnte Ordnung des menschlichen Lebens*)에로의 移行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sup>117)</sup> 大衆의 사명이란 탁월한 자를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밀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오르테가는 大衆이 모범적 인물이나 우수한 자를 혐오 *Aristophobie od. Bestenhaß*하고 지도자를 따르기를 거부할 때 한 사회는 혼란을 경험하거나 역사적으로 無脊椎化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sup>118)</sup> 그리고 이 같은 사회의 無脊椎化는 무정견하고 歪曲된 채 유지하기 짝이 없는 大衆意見의 사회적 승리를 의미하기에 역사는 필연적으로 쇠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sup>119)</sup>

한 사회나 국가의 역사적 성격과 그 上昇이나 下降은 大衆과 선택된 少數者의 關係 *die Beziehung zwischen der breiten Masse und den überragenden Minderheiten*에서 구명할 수 있다고 믿는 오르테가는 古代 인도인들이 믿고 있던 역사의 周期說을 도입해 이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즉 古代 인도인들은 역사란 基트라期 *Kitraepochen*와 칼리期 *Kalispochen*가 永續的 시간을 통해 周期로 交互反復한다고 생각했었으니, 전자는 귀족의 형성, 즉 社會形成期요, 후자는 인도 固有의 계급 제도 *die Idee der Kasten*가 붕괴하면서 下層階級인 수드라 *Shudras*가 사회적으로 부상하는 기간이니, 이 시기에는 브라만 *Brahman*(梵天)이 잠들으로써 귀족 계급은 쇠퇴

116) *Gesammelte Werke*, II, S. 46/無脊椎, p. 316. 반드시 같은 의미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견해는 B. 러셀의 『權力論』에도 나타나고 있다. Bertrand Russell, *Power - A New Social Analysis* (London: Unwin Books, 1938) chs. I, II.  
 117) *Gesammelte Werke*, III, S. 93, 61/Revolt, p. 88-59.  
 118) *Gesammelte Werke*, II, S. 76, 58, 75~76, 44/無脊椎, pp. 359, 334, 358, 314~5.  
 119) *Gesammelte Werke*, II, S. 47/無脊椎, p. 319.

하고 사회의 해체가 진행되는 시기라는 것이다.<sup>120)</sup> 이와 마찬가지로 西歐의 역사를 上昇期와 下降期로 구분한 오르테가는 국가가 형성되는 역사의 上昇期에는 大衆은 스스로를 大衆, 즉 無名集團으로 자각하고 그 集團을 사랑하며 그것을 선택된 인간에게 상징시키고 구현시키려고 하는데 反해 국가가 그 分裂相을 나타내는 역사의 下降期에는 大衆은 그들 각자가 스스로 지도적 인물이라 自處하고 모든 탁월한 자에게 반역, 그들을 혐오·질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大衆은 그들의 행동을 正當化하는 방편으로 <인물이 없다 *Es gibt keine großen Männer.*>거나 귀족이 없는 사회를 理想으로 하는 정치 및 역사 이론을 내세우게 된다고 한다.<sup>121)</sup>

이처럼 大衆과 탁월한 少數者와의 상호 작용이 사회의 근본적 사실 *die Grundtatsache eines jedes Gemeinwesens*이며 사회의 善이나 惡으로의 발전의 動力 *die treibende Kraft seiner Entwicklung, zum Guten oder Schlechten*이 된다<sup>122)</sup>고 믿는 오르테가는 스페인의 정치적 문화적 落後의 要因을 바로 여기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스페인이 17세기 이후로 그 分裂相을 점차 노정,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고, 인간 활동에 있어서도 탁월한 少數者가 결여된 데다가 大衆까지도 卓越性 그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sup>123)</sup>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大衆의 反逆이란 大衆이 그들 스스로의 閉鎖性 *hermitism*과 自慢에 의해 탁월한 少數者에 不服하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사회의 쇠퇴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大衆을 지도해야 할 탁월한 少數者가 타락하여 완전히 범속한 大衆으로 격하되거나 *auf das Niveau der breiten Masse hinabgesunken sind* 大衆의 反逆 裏面에 숨

120) *Gesammelte Werke*, II, S. 49~50/無脊椎, pp. 321~3.  
 121) *Gesammelte Werke*, II, S. 43, 48/無脊椎, pp. 312~3, 320~1.  
 122) *Gesammelte Werke*, II, S. 53~4/無脊椎, pp. 328~30.  
 123) *Gesammelte Werke*, II, S. 68~9, 78/無脊椎, pp. 349, 361; Helene Weyl, "José Ortega y Gasset," pp. 465~8.  
 스페인은 大衆이 匿名으로 文明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原始的의 樣相을 벗어날 수 없는 데 대해, 최후는 선택된 少數者는 많으나 大衆이 적고 不服從의이기에 역사적 불안을 면할 수 없었으며, 러시아는 거대한 民衆의 땅(塊)을 조직화할 수 있는 뛰어난 少數者가 比率上 매우 적다고 오르테가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反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수많은 유용한 人材들이 쏟아진 엘리트의 역사라고 그는 말한다. *Gesammelte Werke*, II, S. 58~60/無脊椎, pp. 335~7.



어 있는 엘리트의 離脫——다시 말하면 엘리트가 大衆의 지도를 거부할 때에도 大衆의 反逆이 야기된다는 점이다.<sup>124)</sup> 따라서 우리는 大衆의 反逆의 主體로서의 大衆이란 무엇이며 이 反逆의 대상, 즉 客體로서의 탁월한 少數者·엘리트 혹은 貴族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역사 이래로 貴族이 없는, 뛰어난 少數者가 없는 사회란 없었다<sup>125)</sup>고 주장하는 오르테가는 <大衆을 경제적으로 열등한 계급의 總體, 즉 프롤레타리아트라 하고, 엘리트를 사회의 최상층 계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장한 社會學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變則的 狀況이 아닌 모든 階級이나 集團에는 범속한 大衆 *eine gewöhnliche Masse* 과 탁월한 少數者 *eine ausgezeichnete Minderheit* 가 공존한다고 한다.<sup>126)</sup> 다시 말하면 오르테가에 있어서 탁월한 자와 大衆과의 구별은 계급적 구획이나 사회적 특징보다는 그 인간적 특징에 근거하는 것이다.<sup>127)</sup>

당초 高貴性·富·洗練性을 축적, 世傳하는 것이 貴族主義의 本領이었으나,<sup>128)</sup> 진정한 귀족주의는 결코 世襲的인 것이 아닌 하나의 模範이 背後에서 따르는 者를 끌어당기는 정신적 引力 *Anziehungskraft*, '정신적 重力의 法則 *Gravitationsgesetz* 에 근거하는 것이다.<sup>129)</sup> 그리고 이같은 탁월한 少數者나 貴族은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것의 무의식적 복종을 영원히 거부하면서 스스로에게 더 많은 義務를 부여하는 人間類型이다.<sup>130)</sup> 그

124) *Gesammelte Werke*, II, S. 53/無脊椎, p. 328; *Gesammelte Werke*, III, S. 35~6/*Revolt*, p. 35; M. Maldonado-Denis, "Ortega y Gasset and the Theory of the Masses," p. 257.

125) *Gesammelte Werke*, II, S. 52/無脊椎, p. 327.

오르테가가 <소수자>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엘리트>·<탁월한 자>·<진정한 인간>·<귀족적 인간> 등등으로 매우 多樣하나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

126) *Gesammelte Werke*, II, S. 53/無脊椎, p. 328.

127) Maldonado-Denis, *op. cit.*, p. 249; F. Mora, *Ortega y Gasset*, p. 39~40.

128) *Gesammelte Werke*, IV, S. 450~1/*Concord and Liberty*, pp. 39~40.

129) *Gesammelte Werke*, II, S. 54~5/無脊椎, pp. 330~1; *Gesammelte Werke*, III, S. 48~9/*Revolt*, pp. 48~9; M. Maldonado-Denis, *op. cit.*, p. 250.

130) 『オルテガ著作集』, 第1卷, p. 156 [*Meditaciones del Quijote*]; *Gesammelte Werke*, III, S. 11, 49/*Revolt*, p. 12, 47; K. R. Hoover, "The Political Thought of José Ortega y Gasset," p. 238; Brenton Campbell, "Free Will and Determinism in the Theory of Tragedy: Pérez de Ayala and Ortega y Gasset," *Hispanic Review*, XXXVII (July, 1969), pp. 373, 382.

형기에 그들은 언제나 긴장에 쌓여 단련중에 있는 苦行者 *die Asketen* 처럼,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召命에 귀를 기울이는 者들이다.<sup>131)</sup> 그리하여 역사의 進運, 유럽의 運命은 역사의 맥박을 느끼고, 현존 생활의 수준을 인정하면서 大衆을 이끌고 나아가갈 계획과 理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 나갈 이들 一群의 集團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sup>132)</sup> 역사 의식의 변모가 大衆에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선택된 少數者, 즉 行動의 人間 *Männer der Tat*, 觀照의 人間 *Männer des Gedankens* 인 이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sup>133)</sup> 그럴 때에야만이 비로소 大衆은 이들 優越者, 上位人間에의 模範에 順從하는(이는 模倣과는 다르다) 창조적 메커니즘 *the mechanism of exemplarity-docility* 이 형성된다고 오르테가는 주장하고 있다.<sup>134)</sup>

3) 大衆人의 概念 1921년 『無脊椎의 스페인』을 통해 스페인의 落後性을 大衆의 反逆에서 찾은 오르테가는 이 같은 대중 사회의 현상이 스페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 全域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현대 大衆社會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豫備的 戰鬪>를 시도한 것이 1930년에 출판된 그의 主著 『大衆의 反逆』이다. 그는 이 著述을 통해 하나의 사회학적인 문제로서 大衆을 다룬 前著와는 달리 絕頂의 時代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의기양양한 大衆人의 實相을 心理學的인 측면에서 명쾌하게 적절했던 것이다.<sup>135)</sup>

19세기의 문명이 가져다 준 현대 사회의 물질적 豊饒는 우리 인류에게 안락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으니 이는 곤궁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생활보다는 훨씬 유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같은 물질

131) *Gesammelte Werke*, III, S. 11~2, 49~51, 126~7/*Revolt*, pp. 13, 47~9, 119~120; *Gesammelte Werke*, III, S. 465, 535/*Man and Crisis*, pp. 97~8, 180; M. Maldonado-Denis, *op. cit.*, p. 250.

132) *Gesammelte Werke*, III, S. 35~6, 76~7/*Revolt*, p. 35, 73; *Mission of the University*, p. 17 (獨逸語全集版에는 英文版 『大學의 使命』 第1章이 缺).

133) *Gesammelte Werke*, II, S. 90 [*El tema de nuestro tiempo*].

134) *Gesammelte Werke*, III, S. 45~6, 92~3/*Revolt*, pp. 44~5, 88; M. Maldonado-Denis, *op. cit.*, pp. 428~9.

135) *Gesammelte Werke*, III, S. 78, 148~9/*Revolt*, pp. 74~5, 138; F. Mora, *Ortega y Gasset*, pp. 65~7; Helene Weyl, "José Ortega y Gasset," p. 458; Maldonado-Denis, "Ortega y Gasset and the Theory of the Masses," p. 247. <大衆人>이란 譯語에 대해서는 註 108) 을 참조하라.



적 풍요는 그에 맞먹는 否定的 결과를 산출했으니 그것이 바로 相續人으로서의 貴族 der Aristokrat, 응석받이 어린애 das verwöhnte Kind,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가장 광범하고 근본적인 大衆人 der Massenmensch 이라고 불려지는 세 가지의 결합 있는 人間類型이다.<sup>138)</sup> 상속받는 귀족의 생애는 나면서부터 富와 特權을 향유하게 마련이나 그는 他人, 즉 그의 先祖를 대리하는 生을 영위하게 되니 그의 眞正性은 상실되고 그의 生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습적 귀족주의는 견장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sup>137)</sup>

한편 응석받이 어린애란 어떤 일이 전혀 당치도 않은 줄 알면서도 바로 그 이유로 하여 그 反對의 것에 확신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人間型이니 문명의 寄食者로서 문명을 어떻게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犬儒主義者나, 자유의 終局的 승리를 갈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는 파시즘 등이 바로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그들은 便宜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된 잘 조직된 세계에서 부자집 막내동이 子息 de famille 처럼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무엇이나 제마음대로 하고 또 그의 의견을 강제하려고 하는 人間型이다.<sup>138)</sup>

오늘날 全유럽(나아가 全世界)에 遍在해 있으면서 오르테가의 大衆社會理論의 핵심을 이루는 均質的인 人間類型으로서의 大衆人의 개념은 오르테가 자신이 1937년에 집필한 『大衆의 反逆』 佛語版 序文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즉 大衆人은 그 자신의 역사를 갖지 못한 인간이기에 <국제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規律에 順從하며, 市場의 偶像 idola fori 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의 껍데기(殼)에 불과하므로 自我가 결여되어 있고, 大衆人은 욕구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의무는 모르는 俗物 snob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39)</sup>

136) *Gesammelte Werke*, III, S. 79/Revolt, p. 76.

137) *Gesammelte Werke*, III, S. 78~9/Revolt, pp. 75~6.

138) *Gesammelte Werke*, III, S. 84~6/Revolt, pp. 79~81.

139) 『オルテガ著作集』第2巻, p. 24.

한편 오르테가는 『大衆의 反逆』 本文 가운데서도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본 大衆人의 心理構造를 (1) 나면서부터 生이란 용이하고 풍부하며 비극적 한계가 없는 것으로서 平均人은 그 스스로의 지배와 승리를 실감하며, (2) 이 지배 및 승리감은 그 스스로를 중경하고 그의 도덕적 지적 才能이 탁월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보기에 이 세상의 유일한 存在者로 自矜하고, (3) 따라서 그는 모든 일에 介入, 그 자신의 低俗한 見解를 他人에게 <적절적인 행동>으로서 강제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르테가에 의하면 <과거는 인간의 本性>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大衆人은 역사적 지식이 전혀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명 세계의 원리에 지극히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大衆人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것을 이용하는 문명을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자연 발생적인 것처럼 믿음으로써 그 스스로 原始人처럼 행동하고 있다.<sup>140)</sup>

한편 大衆人은 그들이 가진 사상이나 교양에 있어서도 眞正性을 상실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그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사회화한 인간이 個人性에 대신하여 사회로부터 흡수한 사회적 신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스스로 判斷·裁定·결정하는가 하면, 사회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여 그의 의견을 강제하려 하는 것이다.<sup>141)</sup>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大衆人이 우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日常性·偏見·하잘것없는 思想·공허한 言語 등을 대담하게도 他人에게 강요하려는 데 있다. 賢者가 庸劣해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대해 이들 大衆人은 스스로 <思慮 깊은 者>로 自足, 安住하니 오르테가는 <바보로 인한 苦痛이 惡漢에 의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개탄하고 있다.<sup>142)</sup>

近代科學이 성취한 물질적 풍요는 大衆人으로 하여금 蕩兒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그들은 물질적 安樂이 우리 인류에 의해서 정연하게 조직된 것이 아니라 自然的 體系에 의해서 주어진 혜택이기에 그들은 安樂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것의 根源이나 根據에 대해서는 無關한 것이다. 그들은 문명의 혜택이나 發明, 構造物의 驚異 등의 찬연한 과학적 진보를 향유하고 또 그것을 하나의 生得的 권리로서 요구하지만 그것이 緊張과 苦行에 쌓인 천재적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생각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들은 <來日도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아무런 想念도 없이 쉽사리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욕망을 충족키 위해 더 많은 것

*Gesammelte Werke*, III, S. 77/Revolt, p. 74; M. Maldonado-Denis, *op. cit.*, p. 252; F. Mora, *op. cit.*, pp. 66~7.

140) *Gesammelte Werke*, III, S. 64~5, 71~3, 76/Revolt, pp. 62, 68~70, 72.

141) *Gesammelte Werke*, III, S. 55~7/Revolt, pp. 54~5; *Gesammelte Werke*, III, S. 476/Man and Crisis, p. 111; Maldonado-Denis, *op. cit.*, pp. 253~4.

142) *Gesammelte Werke*, III, S. 54~5/Revolt, pp. 52~3.

을 權利로서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빵을 찾아서 마칩내는 빵집을 파괴하는 *propter vitam vivendi perdere causas*(生을 위해 生의 目的을 放棄한다) 愚學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sup>143)</sup>

그러나 이처럼 스스로의 權利에 급급하는 大衆人은 거기에 상응하는 義務를 고려하지 않는다. 탁월한 少數者가 권리로서가 아니라 의무로서 그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이에 직면하는 이른바 <高貴한 義務 *noblesse oblige*><sup>144)</sup>에 충실한 데 반해 大衆人은 스스로의 完全性에 만족한 채 어떠한 의무적 權威도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sup>145)</sup> 그들은 스스로 宇宙의 중심임을 자처하고 模範과 順從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부인하면서 그전까지 少數者에게만 한정되었던 모든 곳에 密集하여 少數者의 정치적·사회적 機能까지도 대신하려고 하는 속물적 屬性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sup>146)</sup>

한편 오르테가는 大衆人과 거의 비슷한 개념의 人間類型으로서 平均人(혹은 凡庸人 *der Durchschnittsmensch*)·專門家·野蠻人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平均人의 경우 오르테가는 이렇다 할 재능을 갖추지 못한, 즉 탁월한 소수자와 반대되는 人間型을 지칭하고 있으나 그것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大衆, 혹은 大衆人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sup>147)</sup>

그리고 專門家(그는 科學者도 같은 범주 안에 넣고 있다)의 경우, 그들은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오늘날의 大衆을 출현케 한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오르테가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르테가는 과학에 대한 인간의 신념이, 190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퇴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가는 비록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과학의 발달에 따라 그 知的 범위가 더욱 제약되어 餘他分野에 대해서는 거의 無知하다

143) *Gesammelte Werke*, III, S. 45~7/*Revolt*, pp. 44~5.

144) 이러한 정신은 괴테의 다음과 같은 詩句에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Nach seinem Sinne leben ist gemein;/der Edle strebt nach Ordnung und Gesetz.  
(그의 마음대로 사는 것은 凡庸한 것이다./高貴한 者는 질서와 규범을 추구한다.)

145) *Gesammelte Werke*, III, S. 48~51/*Revolt*, pp. 47~9.

146) *Gesammelte Werke*, III, S. 7~13, 18/*Revolt*, pp. 9~14, 18; M. Maldonado-Denis *op. cit.*, pp. 249, 255~7.

147) Cf. M. Maldonado-Denis, *op. cit.*, p. 258.

는 것이다 *gelehrte Ignoranten*. 그리하여 그의 小宇宙에 있어서 최고와 자질을 갖춘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서는 아무런 자질도 갖지 못한 大衆人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게 되니 이는 유럽 문명의 쇠퇴에 대한 직접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48)</sup>

한편 粗暴한 野蠻人은 이렇다 할 사상도 갖지 못한 大衆이 그 어떠한 의무적 권위도 받아들여 하지 않으므로 해서 생겨나는 인간형이다. 즉 최종적으로 호소할 표준을 갖지 못한 大衆이 정상적 과정이나 儀式을 뺀개치고 사회생활에 개입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직접적 행동 *action directe*은 폭력을 최초 *prima ratio*, 유일의 수단 *unica ratio*으로 선언하게 되나 생디칼리즘이나 파시즘에서 나타나는 인간 유형이 바로 그것이다.<sup>149)</sup>

## V. 眞正性의 회복을 위한 自己沈潛

우리는 지금까지 오르테가의 사회 이론과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대중의 반역이란 문제를 고찰해 왔다. 그리고 그의 이론의 頂點은 慣習과 世論에 의한 진정한 개인적 自我의 상실과 模範과 順從이라는 사회의 창조적 메커니즘이 대중의 반역에 의해 瓦解됨으로써, 오늘날의 사회는 역사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현대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현대 사회에 대한 신랄한 그의 비판, 특히 大衆人의 해부를 통

148) *Gesammelte Werke*, III, S. 87~92/*Revolt*, pp. 83~7; *Gesammelte Werke*, IV, S. 374, 378, 380~1(*Historia como sistema*); *Gesammelte Werke*, III, S. 212~3, 226/*Mission of the University*, pp. 42~3, 62.

오르테가는 오늘날 전문적인 과학자는 많으나 진정한 <교양인>의 수는 1750년대보다도 훨씬 적다고 지적함으로써, 이 점에 관한 한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에너크리스트로 지적되고 있다. Geoffrey Clive, "Revolt of the Masses by José Ortega y Gasset," pp. 78~9;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참조.

한편 오르테가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서는 실즈의 다음 논문 참조하라. Edward Shils, "Mass Society and Its Culture," *Culture for the Millions*, ed. Norman Jacobs (Princeton, N.J.: Van Nostrand, 1961), pp. 1~27.

149) *Gesammelte Werke*, III, S. 57~60/*Revolt*, pp. 55~8; N. S. 28/*Man and People*, p. 33; *Gesammelte Werke*, III, S. 505, 507/*Man and Crisis*, pp. 145, 148.

한 현대적 상황에서의 비판적 서술은 일부 학자들로 하여금 그를 페시미스트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sup>1502</sup> 현대 사회의 불안과 역사적 위기가 가져온 혼돈은 인간을 空虛 속에서 헤매게 만들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 같은 失意 속에서 새로운 신념과 새로운 생활 양식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sup>1511</sup> 특히 自己疎外 *die Selbstenfremdung, alteración, 自己沈潛 die Insichselbstversenkung, Vita contemplativa, 行動的 生 die Aktion, Vita activa* 을 인간의 역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계의 주기적 계기<sup>1512</sup>로 보는 오르테가에 있어서는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인간 소외의 여러 가지 양상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困窮의인 生을 비판하고 인간의 生이 처한 困惑에 지침을 제공하므로써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요 지성의 사명<sup>1513</sup>이라고 생각하는 오르테가는 비록 인간의 社會化 *Sozialisierung* 나 集團化 *Kollektivisierung*, 문화의 圖式化나 困窮化가 인간의 自己沈潛, 自己復歸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하나의 장벽인 것이다.<sup>1514</sup> 인간을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고 그 주의력을 피로하게 만드는 현대적 상황은 인간을 원시화하거나 야만화하기도 하나 인간은 바로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통해서야만이 비로소 自己沈潛의 계기를 찾게 되는 것이다.<sup>1515</sup> 인간은 고독이나 진정한 實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본질적 속성인 自己沈潛을 내버리고 자신을 他人 가운데 放棄함으로써 慣習과 世論에 쫓겨 日常化되어 버린 大眾人으로서 공유병자처럼 기계적으로 활

150) K.R.Hoover, "The Political Thought of José Ortega y Gasset," p. 240; H. L. Nostrand, "Introduction," in *Mission of the University*, pp. 21~2.

151) *Gesammelte Werke*, III, S. 457/*Man and Crisis*, p. 88; F. Mora, *Ortega y Gasset*, p. 65; H. L. Nostrand, *op. cit.*, pp. 25~6.

152) *Gesammelte Werke*, V, S. 18/*Man and People*, p. 23.

153) *Man and People*, pp. 101, 45; *Gesammelte Werke*, V, S. 386 [*Historia como sistema*].

154) *Gesammelte Werke*, III, S. 467~8/*Man and Crisis*, pp. 100~1.

155) *Gesammelte Werke*, III, S. 453/*Man and Crisis*, p. 96; *Gesammelte Werke*, II, S. 31~2/*無脊椎*, pp. 288~9.

사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오르테가는 말한다. 즉 동물은 자기 자신 *chez soi* 이나 內部 *selbst* 가 없는 周圍世界이다 *Er ist Umwelt*. 따라서 그는 외부의 위험이나 자극이 없으면 수면 상태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간단없이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으나 중국에는 스스로에로 도망가 沈潛 *ensismarse, be inside himself* 하는 동물이다. *Gesammelte Werke*, V, S. 12~5, 23~4/*Man and People*, pp. 17~9, 28~9; *Gesammelte Werke*, III, S. 462~3/*Man and Crisis*, pp. 94~5.

동하고 있는 것이다.<sup>1516</sup> 사실 만족·성공·성취 가운데서 생활하는 오늘날의 인간이 自己沈潛을 위해 고독 가운데서 思惟한다는 것은 思惟 자체가 물고기의 游泳이나 새의 飛翔처럼 완전한 기능이나 능력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소외와 비인간화의 가능성은 恒存하는 것이다.<sup>1517</sup> 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신에 진실해질 수 있는 고독, 즉 自己沈潛을 통해 스스로에 일치하고, 또 스스로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진리는 마침내 壓殺됨으로 우리 인류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自己沈潛의 능력을 고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르테가는 주장하고 있다.<sup>1518</sup> 그리고 이 같은 自己沈潛의 가능성은 大學이 살아 있는 사상 체계의 함양을 위해 高次의 정신적 능력을 회복하게 될 때에 더욱더 증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대학이 우리들의 문화가 가진 최고의 요소를 종합하여 전문화된 근대 생활의 여러 측면을 조화시켜 미래를 설계할 때 우리 인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는 자기 자신에 沈潛하여 스스로를 장악할 때에야 비로소 방종하거나 소외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519</sup> 여기서 인간에 대한 오르테가의 가치 척도는 사회적 관습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 자신의 潛在可能性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眞正性 *authenticity* 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이다.<sup>1520</sup>

한편 탁월한 자에 대한 혐오에서 출발하는 대중의 반역 또한 귀족적 의무감을 상실한 대중의 背願이나 탁월한 소수자의 결여로 말미암은 좌절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탁월한 자에 대한 애정의 정서가 나타난다고 오르테가는 생각한다.<sup>1521</sup> 그러므로 대중의 반역이라는 오늘날의 상황은

156) *Gesammelte Werke*, III, S. 459~60/*Man and Crisis*, pp. 91~2; *Gesammelte Werke*, V, S. 11~2/*Man and People*, p. 16.

157) *Gesammelte Werke*, V, S. 18~20/*Man and People*, pp. 23~5.

158) *Gesammelte Werke*, III, S. 24/*Revolt*, p. 25; *Gesammelte Werke*, V, S. 15~6, 29~30/*Man and People*, pp. 20~1, 35; *Man and People*, p. 50, 99; *Gesammelte Werke*, III, S. 458, 475/*Man and Crisis*, pp. 90, 109; F. Mora, *op. cit.*, p. 72.

159) *Gesammelte Werke*, III, S. 209~10, 217/*Mission of the University*, pp. 34~40, 91; *Gesammelte Werke*, V, 18/*Man and People*, p. 23; *Gesammelte Werke*, III, S. 459/*Man and Crisis*, p. 91; H. L. Nostrand, *op. cit.*, pp. 22, 29~30.

160) K.R. Hoover, *op. cit.*, pp. 236~7.

161) *Gesammelte Werke*, III, S. 42~3, 48/*Revolt*, pp. 41~2, 46; *Gesammelte Werke*,



그에게 있어서는 역사 발전의 한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다.<sup>165)</sup>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난 시대의 美나 調和의 질책이 아니라 사회적 배척니즘으로서의 模範과 順從에 있어서 누가 모범이 되느냐, 즉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sup>166)</sup> 이에 대한 해답은 오르테가가 언제나 강조하는 탁월한 소수자, 즉 大衆人의 諸般屬性을 거부하고 그 자신을 초월하는 표준에 호소하고 봉사하는 선택된 인간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소수자에의 길은 大衆人이기를 거부하고 고귀한 의무에 충실하려는. 모든 인간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sup>167)</sup> 대중이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소수자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때 부정적인 현대적 상황은 새로운 장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오르테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 V. 結

유럽 문명의 邊方 스페인에서 출생하여 독일 유학을 통해 그 문명의 진수에 접한 오르테가는 유럽에서 가장 낙후한 스페인적 현실의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스페인의 無脊椎化를 추구해 들어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스페인의 無脊椎化가 스페인인 가운데 만연한 진정성을 상실한 擬似生 pseudo-life 과 그들을 지도할 탁월한 소수자의 결여에 있음을 밝혀냈던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에 대한 오르테가의 이 같은 분석은 실은 스페인적 현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유럽 문화권의 특색이요 그 投射임을 발견한 오르테가는 20세기 초두의 유럽적 현실에 대해 예리한 통찰을 시도했으니 그것이 바로 그의 사회 이론이요 大衆人의 해부이다.

II, S. 75~6/無脊椎, p. 358.

162) *Gesammelte Werke*, II, S. 81 [El tema de nuestro tiempo]; *Gesammelte Werke*, II, S. 48/無脊椎, pp. 320~1.

163) Helene Weyl, "José Ortega y Gasset," p. 469.

164) 그러므로 오르테가에 있어서의 탁월한 소수자(혹은 귀족)는 변칙적인 상황이 아닌 한 모든 계급 Klasse 이나 집단 Gruppe 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의 상층부, 세련된 민족은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뛰어난 인물을 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逆으로 大衆人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Gesammelte Werke*, II, 53, 56/無脊椎, pp. 328, 332; *Gesammelte Werke*, III, S. 52/Revolt, p. 49.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그의 사회 이론은 사회학에 대한 형이상학적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의 대중 사회 이론, 즉 대중의 반역 현상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모색하려는 노력이었다. 20세기 초두, 과학 기술의 발달과 자유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라 나타난 유럽에서의 대중의 반역 현상은 제 1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파시즘의 대두로 말미암아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으니 이는 격동기에 처한 현대 사회가 새로운 질서, 즉 대중의 지배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중의 지배는 오늘날의 인간적 性向이 드러내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의 증대로 말미암아 현대 사회의 불안을 더욱더 高潮시키게 되었다. 이에 오르테가는 현대 사회의 불안과 위기의 문제를 大衆人이 갖는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했으니 그것이 바로 그의 大衆人의 개념이다.

<미래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所持物인 역사><sup>165)</sup>를 갖지 못한 인간, 관습이나 규율에 맹종하는 群像, 스스로 이렇다할 主見도 없이 자기의 견해라고 <생각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인간, 욕구만 갖고 권리만을 생각하며 의무를 모르는 俗物, 최소한의 절차와 남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는 인간 등으로 규정되는 오르테가의 大衆人은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우리 주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소외된 인간의 속성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sup>166)</sup> 한편 그의 대중 사회 이론, 특히 대중의 반역을 둘러싸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대중과 엘리트의 구분(오르테가에 있어서는 模範과 順從을 통한 調和가 바람직하겠지만)은 사회의 구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흠은 있겠지만 대중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167)</sup> 특히 오르테가는 비록 未完

165) *Gesammelte Werke*, III, S. 485/Man and Crisis, p. 122.

166) 『オルテガ著作集』, 第2卷, pp. 23~4(『大衆의 反逆』, 佛語版序文) 및 Maldonado-Denis, *op. cit.*, pp. 252 ff. 참조.

M. 사이먼은 疏外의 개념으로 無力感·無意味性·無規範性·孤立·自己疎遠의 5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筆者로서는 사이먼의 개념 규정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筆者는 이 疏外의 개념을 경제를 포함한 제반 사회적 현상에 좀더 자유롭게 援用하고 있다. Melvin Seeman,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4, No. 6 (Dec. 1959) pp. 783~91. 拙稿, 『人間疎外論研究』(I)·(II) 및 『官僚制——疎外論의 接近可能性에 대한 一試論』, 『法律行政論集』, 第12輯(高麗大學校法科大學, 1974) 및 本書第四章 참조.

167) Daniel Bell, *The End of Ideology*, ch. 1; William Kornhauser,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Karl Mannheim, *Diagnosis of Our Tim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43), chs. V·W; Karl Mannheim, *Man and Society in an Age of*



成 遺稿이긴 하나 그의 『人間과 人間들』의 마지막에서 <사회란 《본질적》으로 병들고 불완전한 實在라는 확신에 대해 근본적으로 눈을 뜰 필요가 있으니,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사회란 진정한 사회적 요소 및 諸行爲와 非社會的, 혹은 反社會的 요소 및 諸行爲간의 끊임없는 鬭爭이다><sup>168)</sup>라고 규정한 부분은 E. 프롬의 <사회란 병들 수 있는가?>라는 命題와 더불어 사회 이론, 특히 疎外論研究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sup>169)</sup>

이렇게 볼 때 유럽 문화권의 周邊에서 태어나 스스로 유럽 문화의 精華를 호흡하고, 나아가 그 문화의 精髓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오르테가 가 바로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예견·진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 인류의 각성을 촉구한 사실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겠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학문적 업적은 여러 가지 양상의 소외 현상을 나타내는 오늘날의 우리 인류를 이해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공헌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Reconstruc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40), Pts II·III; Edward Shils, "Mass Society and Its Culture"; Ernest van den Haag, "A Dissent from the Consensual Society," *Millions* ed. Norman Jacobs *Culture for the* (Princeton, N. J.: Van Nostrand, 1961), pp. 53~62. 등 참조.

168) *Man and People*, p. 271 참조.

169) Erich Fromm, *The Sane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6), ch. 2 참조.

## 參 考 文 獻

\* 두 가지 版本이 제시된 경우  
本編에서 引用된 것은 後者이다.

### □ 一次資料

#### I. 疎外概念의 淵源에 관한 것

Rousseau, Jean-Jacques,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 (London: J.M. Dent & Sons Ltd., 1952)

—, *Émile ou de l'éducation* (Paris: Éditions Garnier Frères, 1964)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n *Sämtliche Werke*, hrsg. von Hermann Glockner (Stuttgart: Fr. Frommans Verlag, 1951), II. Band

—, *The Phenomenology of Mind*, trans. with an introduction by J.B. Baillie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67)

—, 『精神現象學』, 上·中·下, 金子武藏譯 (東京: 岩波書店, 1932/1941/1946)

Feuerbach, Ludwig, *Das Wesen des Christentums*, in: *Sämtliche Werke*, hrsg. von W. Bolin und F. Jodle (Stuttgart: Fr. Frommans Verlag, 1903), VI. Band

#### II. 마르크스의 初期著作

*The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ed. with an introduction by D.J. Struik, trans. by Martin Milliga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4)

『經濟學·哲學草稿』, 城塚登·田中吉六譯 (東京: 岩波書店, 1964)

*The German Ideology* (with F. Engels), Part I & III, ed. with an introduction by R. Pascal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3)

*Die Deutsche Ideologie* (Berlin: Dietz Verlag, 1953)

*Die Frühschriften*, hrsg. von Siegfried Landshut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1953)

*Early Writings*, trans. and ed. by T.B. Boltmor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3)

### III. 프롬의 저작

- \* 프롬은 우리 말 譯本이 있음을 가리킨다.
- \*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41)
- \* *Man for Himself: An Inquiry into the Psychology of Ethic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47)
- \* *Psychoanalysis and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0/New York: Bantam Books, 1967)
- \* *The Forgotte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Understanding of Dreams, Fairytales, and Myth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51)
- \* *The Sane Socie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55/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6)
- \* *The Art of Loving* (New York: Harper & Row, 1956/New York: Bantam Books, 1963)
- "Man is Not a Thing," *Saturday Review of Literature*, March 16, 1957
- Sigmund Freud's Mission: An Analysis of His Personality and Influence* (New York: Harper & Bros., 1959)
- "Let Man Prevail: A Socialist Manifesto and Program," *The Socialist Call*, Vol. XXVIII, NO. 2 (Summer, 1960)
- Marx's Concept of Man*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61)
- May Man Prevail? An Inquiry into the Facts and Fictions of Foreign Policy*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61/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2)
- Beyond the Chains of Illusion: My Encounter with Marx and Freud* (New York: Simon & Schuster, 1962/『疑惑と行動』 阪本健二・志貴春彦共譯, 東京: 創元社, 1965)
- \* *The Dogma of Christ and Other Essays on Religion, Psychology and Cultur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3)
- \* *The Heart of Man: Its Genius for Good and Evil* (New York: Harper & Row, 1964/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68)
- "Problems of Interpreting Marx," in *The New Sociology: Essays in Social Science and Social Theory in Honor of C. Wright Mills*, ed. by LL Horowitz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The Application of Humanist Psychoanalysis and Marx's Theory," in *Socialist Humanism: An International Symposium*, ed. by Erich Fromm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65/London: Allen Lane, The Penguin Press, 1967)

- \* *You Shall Be as Gods: A Rad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and Its Tra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6)
- \* *The Revolution of Hope: Towards a Humanized Technology* (New York: Harper & Row, Bantam Books, 1968)
- \* *The Crisis of Psychoanalysis: Essays on Freud, Marx and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0/Greenwich, Conn.: A Fawcett Premier Book, 1971)
-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3)
-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 Row, 1976/Haben oder Sein: Die seelischen Grundlagen einer neuen Gesellschaft,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1977)*
- \* *Zen Buddhism and Psychoanalysis*, with D.T. Suzuki and R. de Martino (New York: Harper & Bros., 1960/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0)
- The Nature of Man*, eds. with Ramón Xirau (London: The Macmillan Co., 1968)

### V. 疎外問題を 다룬 社會學關係論著

- \* 本項에서 자주 나오는 英美의 社會學關係雜誌의 略語는 다음과 같다.  
 AJS=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APSR=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ASR=American Sociological Review; BJS=British Journal of Sociology  
 \*로 표한 論文은 本文 가운데서 直接 인용되지는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 \* Aberbach, Joel D., "Alienation and Political Behavior," *APSR*, Vol. 63, No. 1 (March, 1969), pp. 86~99
- Aiken, Michael and Jerald Hage, "Organizational Alien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SR*, Vol. 31, No. 4 (August, 1966), pp. 497~507
- Barakat, Halim, "Alienation: A Process of Encounter between Utopia and Reality," *BJS*, Vol. 20, No. 1 (March, 1969), pp. 1~10
- Berger, Peter and Stanley Pullberg, "Reification and the Sociological Critique of Consciousness," *History and Theory*, Vol. 4, No. 2 (1965), pp. 196~211
- Blauner, Robert, *Alienation and Freedom: The Factory Worker and His Indust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 \*Bolton, Charles D., "Alienation and Action: A Study of Peace Group Members," *AJS*, Vol. 78, No. 3 (November, 1972), pp. 537~61  
—, Commentary and Debate, *see* Seidler, John *et al.* (1974)
- Browning, Charles J., Malcolm F. Farmer and G. Duncan Mitchell,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Communications), *ASR*, Vol. 26, No. 5 (October 1961), pp. 780~81
- \*Carterwright, Desmond S., "A Misapplication of Factor Analysis," *ASR*, Vol. 30 (April, 1965), pp. 249~51
- Clark, John P., "Measuring Alienation within a Social System" (Research Reports and Notes), *ASR*, Vol. 24, No. 6 (December, 1959), pp. 849~52
- \*Copeland, John W., "Putney and Middleton's 'Ethical Relativism and Anomia'," (Letters to the Editor), *AJS*, Vol. 68, No. 4 (January, 1963), pp. 487~88
- \*Cotgrove, Stephen, "Alienation and Automation," *BJS*, Vol. 23, No. 4 (December, 1972), pp. 437~51
- Dean, Dwight G.,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SR*, Vol. 26, No. 5 (October, 1961), pp. 753~8
- \*Diesing, Paul and Paul Piccone, "Kaufman on Alienation," *Inquiry*, Vol. 10 (1967), pp. 208~10
- Etzioni, Amitai, *The Active Society: A Theory of Societal and Political Process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 "Basic Human Needs, Alienation and Inauthenticity," *ASR*, Vol. 33, No. 6 (December, 1968), pp. 870~85  
—, Communications, *see* Nettler, Gwynn (1969)
- Feuer, Lewis, "What is Alienation? The Career of a Concept," *New Politics*, Vol. 1, No. 3 (Spring, 1964), pp. 116~34
- Finifter, Ada W., "Dimensions of Political Alienation," *APSR*, Vol. 64, No. 2 (June, 1970), pp. 389~410  
—, ed., *Alienation and the Social System*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2)
- Fischer, Claude S., "Alienation: Trying to Bridge the Chasm," *BJS*, Vol. 27, No. 1 (March, 1976), pp. 35~49
- Hajda, Jan, "Alienation and Integration of Student Intellectuals," *ASR*, Vol. 26, No. 5 (October, 1961), pp. 758~71

- Horowitz, Irving Louis, "On Alienation and the Social Order,"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27, No. 2 (December, 1966), pp. 230~7
- Horton, John, "The Dehumanization of Anomie and Alienation: A Problem in the Ideology of Sociology," *BJS*, Vol. 15, No. 4 (December, 1964), pp. 283~300  
—, and Wayne E. Thompson, "Powerlessness and Political Negativism: A Study of Defeated Local Referendums," *AJS*, Vol. 67, No. 5 (March, 1962), pp. 485~93
- Kaufman, Arnold S., "On Alienation," *Inquiry*, Vol. 8, No. 2 (Summer, 1965), pp. 141~65  
—, Comments, *see* Diesing, Paul *et al.* (1967)  
\* —, "Diesing and Piccone on Kaufman," (Rejoinder), *Inquiry*, Vol. 10 (1967), pp. 211~6
- Keniston, Kenneth, *The Uncommitted: Alienated Youth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Dell Publishing Co. Inc., 1970)
- Kim, Kyong-Dong, "Alie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 Empirical Reconceptualization" (Unpublished paper presented to the 69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ugust 25~29, 1974, Montreal, Canada)
- Kon, Igor S., "The Concept of Alienation in Modern Sociology," *Social Research*, Vol. 34 (Autumn, 1967), pp. 507~28
- Levin, Murray, *The Alienated Vote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0)
- McClosky, Herbert and John H. Schaar, "Psychological Dimensions of Anomy," *ASR*, Vol. 30, No. 1 (February, 1965), pp. 14~40
- McDill, Edward L. and Jeanne Clare Ridley, "Status, Anomia, Political Alien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JS*, Vol. 67, No. 2 (September, 1962), pp. 205~13
- Merton, Robert K., "Social Structure and Anomie," i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s*,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7), pp. 131~60
- Middleton, Russell, "Alienation, Race, and Education," (Research Reports and Notes), *ASR*, Vol. 28, No. 6 (December, 1963), pp. 973~77



- Miller, George A., "Professionals in Bureaucracy: Alienation among Industrial Scientists and Engineers," *ASR*, Vol. 32, No. 5 (October, 1967), pp. 755~68
- \*Mizruch, Ephraim Harold, "Alienation and Anomie: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in *The New Sociology*, ed. by I.L. Horowitz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p. 253~67
- Nachmias, David, "Modes and Types of Political Alienation," *BJS*, Vol. 25, No. 4 (December, 1974), pp. 478~93
- Neal, Arthur G. and Salomon Rettig, "Dimensions of Alienation among Manual and Non-manual Workers," *ASR*, Vol. 28, No. 4 (August, 1963), pp. 599~608
- \_\_\_, Comments, see Cartwright (1965)
- \_\_\_,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Alienation," *ASR*, Vol. 32, No. 1 (February, 1967), pp. 54~64
- Nettler, Gwynn, "A Measure of Alienation," *ASR*, Vol. 22, No. 6 (December, 1957), pp. 670~7
- \*\_\_\_, "On Being 'Alienated'," (Communications), *ASR*, Vol. 34, No. 4 (August, 1969), pp. 553~4
- Putney, Snell and Russell Middleton, "Ethical Relativism and Anomia," *AJS*, Vol. 67, No. 4 (January, 1962), pp. 430~38
- \_\_\_, Comments, see Copeland (1963)
- \*\_\_\_, "Rejoinder," *AJS*, Vol. 68, No. 4 (January, 1963), p. 489
- Scott, Marvin B., "The Sources of Alienation," in *The New Sociology*, pp. 239~52
- Seeman, Melvin,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SR*, Vol. 24, No. 6 (December, 1959), pp. 783~91
- \_\_\_, Communications, see Browning *et al.* (1961)
- \*\_\_\_, "Reply to Whittier College Group," *ASR*, Vol. 26, No. 5 (October, 1961), p. 781
- \*\_\_\_, "Alienation and Social Learning in a Reformatory," *AJS*, Vol. 69, No. 3 (November, 1963), pp. 270~84
- \_\_\_, "On the Personal Consequences of Alienation in Work," *ASR*, Vol. 32, No. 2 (April, 1967), pp. 273~85
- \_\_\_, "The Signals of '68: Alienation in Pre-Crisis France," *ASR*, Vol. 37, No. 4 (August, 1972), pp. 385~402

- \_\_\_,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eds by A. Campbell and P. Converse (New York: Russell Sage Basic Books, 1972), ch. 12 (pp. 467~527)
- \*\_\_\_, and John W. Evans, "Alienation and Learning in Hospital Setting," *ASR*, Vol. 27, No. 6 (December, 1962), pp. 772~82
- \*Seidler, John, Adrian F. Aveni and Timothy J. Curry, "On Bolton's Alienation and Action: A Study of Peace-Group Members," (Commentary and Debate), *AJS*, Vol. 79, No. 5 (March, 1974), pp. 1300~05
- Srole, Leo, "Social Integration and Certain Corollaries: An Exploratory Study," *ASR*, Vol. 21, No. 6 (December, 1956), pp. 709~16
- Struening, Elmer L. and Arthur H. Richardson, "A Factor Analytic Exploration of the Alienation, Anomia and Authoritarianism Domain," (Research Reports and Notes), *ASR*, Vol. 30, No. 5 (October, 1965), pp. 768~76
- \*Tannenbaum, Abraham J.,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Alienated Youth," i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5, No. 2 (1969), pp. 1~5
- \*Taviss, Irene, "Changes in the Form of Alienation: The 1900's vs. the 1950's," *ASR*, Vol. 34, No. 1 (February, 1969), pp. 46~57

## □ 引用된 二次資料

- Adorno, T.W., *et al.*,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0)
- 安秉永, 「體制收斂論과 官僚制」, 『現代政治와 官僚制』(서울: 大旺社, 1976), pp. 98~119
- Andreski, Stanislaw, *Social Sciences as Sorcery* (London: Andre Deutsch, 1972)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 Barth, Hans, *Wahrheit und Ideologie* (Zürich: Manesse Verlag, 1945)
- Bell, Daniel, *The End of Ideology: On the Exhaustion of Political Ideas in the Fifties*, revised ed. (New York: Collier Books, 1962)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_\_\_\_\_,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1973)

Berger, Peter L., *Invitation to Sociology: A Humanistic Perspective*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63/Hammonsworth: Penguin Books Ltd., 1966)

\_\_\_\_\_,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 Ltd., 1966/Anchor Books, 1967)

Berlin, Isaiah, *Karl Marx: His Life and Environment*,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_\_\_\_\_, *Two Concepts of Liber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Biddulph, Howard Lowell, *Karl Marx's Early Thought in Soviet Philosoph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1966)

Birnback, Martin, *Neo-Freudian Social Philosophy* (Stanford, Cal.: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1)

Buber, Martin, *Paths in Utopia* (Boston: Beacon Press, 1950)

Calvez, Jean-Yves, *Karl Marx: Darstellung und Kritik seines Denkens* (aus dem französischen *La Pensée de Karl Marx*), Übersetzung von Theodor Sapper (Olten und Freiburg im Breisgau: Walter-Verlag Ag., 1964)

Cantril, Hadley *The Psychology of Social Movement* (New York: John Wiley, 1941)

秦敬勳, 「Helmuth Plessner의 哲學의 人間에 關한 小考」, 『哲學』 第10輯(1976), pp. 99~114.

\_\_\_\_\_, 「우리들은 누구인가——人間學斷想」, 『文學과知性』 第25號 (1976년, 가을), pp. 616~26

鄭文吉, 「人間疎外論研究——Karl Marx의 疎外 메커니즘을 中心으로」, 『友石文理·法經大論文集』 第1輯(1967), pp. 509~51

\_\_\_\_\_, 「人間疎外論研究——에리히 프롬의 社會批判과 그의 Sane Society」, 『友石文理·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pp. 589~620

\_\_\_\_\_, 「人間疎外論研究——오르테가의 社會理論과 大衆人의 概念」, 『文學과知性』 第16號(1974년 여름), pp. 288~323

\_\_\_\_\_, 「大衆과 그 反逆의 社會」, 『文學思想』(1975년 3월), pp. 430~41

\_\_\_\_\_, 「20世紀의 휴머니스트의 肖像——現代의 狀況과 에리히 프롬의 學問世界」, 『文學思想』 第37號(1975년 10월), pp. 256~73

\_\_\_\_\_, 「官僚制——그 疎外論的 接近可能性에 關한 一試論」, 『法律行政論集』 第12輯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1974), pp. 175~95

Cornu, Auguste, *The Origins of Marxian Thought*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57)

Coser, Lewis A., "Two Methods in Search of a Substance: Presidential Add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0, No. 6 (December, 1975), pp. 691~700

Cuddihy, John Murray, *The Ordeal of Civility: Freud, Marx, Lévy-Strauss, and the Jewish Struggle with Modernity*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74)

De George, Richard T., *Patterns of Soviet Thought: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Dialectical and Historical Materialism*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6)

\_\_\_\_\_, *The New Marxism: Soviet and East European Marxism since 1956* (New York: Pegasus, 1968)

De Grazia, Sebastian, *The Political Community: A Study of Anomi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Dupré, Loui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Marxism*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6)

Durkheim, Emile, *Suicide*, trans. J.H. Spaulding and George Simpson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1)

Evans, Richard L., *Dialogue with Erich Fromm* (New York: Harper & Row, 1966/『에리히 프롬과의 對話』, 馬相助譯, 서울:文學과知性社, 1976)

Fetscher, Iring, *Karl Marx und der Marxismus: Von der Philosophie des Proletariats zur proletarischen Weltanschauung* (München: R. Piper & Co. Verlag, 1967)

\_\_\_\_\_, "Der Marxismus im Spiegel der französischen Philosophie," *Marxismstudien* (Schriften der Studiengemeinschaft der evangelischen Akademien), 1. Folge, hrsg. von Erwin Metzke (Tübingen: J.C.B. Mohr, 1954), S. 173~213

\_\_\_\_\_, "Marx, Engels and the Future Society." *Survey*, No. 38 (October,

1961), pp. 100~110

Friedenberg, Edgar Z., "Neo-Freudianism and Erich Fromm," *Commentary*, Vol. 34, No. 4 (October, 1962), pp. 305~13

Gans, Herbert J.,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aste* (New York: Basic Books, Inc., 1974)

게엘렌, 「人間學的 探求」, 林錫珍譯, 崔載喜編 『現代의 人間發見(I)』(서울: 태극出版社, 1974), pp. 257~93

Gerth, Hans 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Grodzins, Morton, *The Loyal and Disloy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Habermas, Jürgen, *Theorie und Praxis: Sozialphilosophische Studien* (Frankfurt/M.: Suhrkamp Verlag, 1974)

\_\_\_\_\_, *Zur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Tübingen: Siebeck und Mohr, 1967/Frankfurt/M.: Suhrkamp Verlag, 1970)

\_\_\_\_\_,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M.: Suhrkamp Verlag, 1968)

韓完相, 『現代社會와 青年文化』(서울: 法文社, 1973)

\_\_\_\_\_, 『證人없는 社會』(서울: 民音社, 1976)

Heidegger, Martin, "Über den Humanismus," in *Platons Lehre von der Wahrheit* (Bern: A. Francke, 1947)

Heinemann, F.H., *Existentialism and the Modern Predicamen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8)

Held, Virginia, "The Terms of Political Discourse: A Comment on Oppenheim," *Political Theory*, Vol. 1, No. 1 (February, 1973), pp. 69~75

Hook, Sidney, *From Hegel to Marx: Studies in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Karl Marx* (New York: The Humanities Press, 1958)

Hughes, H. Stuart, *The Sea Change: The Migration of Social Thought, 1930~1965* (New York: Harper & Row, 1975)

Jay, Martin, *The Dialectical Imagination: A History of Frankfurt School and the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1923~1950* (Boston: Little Brown & Co.,

302

1973)

Josephson, Eric and Mary, eds., *Man Alone: Alienation in Modern Society*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2)

Kahler, Erich, *The Tower and the Abyss: An Inquiry into the Transformation of Ma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7)

Kamenka, Eugene, "Marxian Humanism and the Crisis in Socialist Ethics," in *Socialist Humanism*, ed. by Erich Fromm, pp. 107~17

檜山欽四郎, 『ヘーゲル精神現象學の研究』(東京: 創元社, 1968)

Kaufmann, Walter, "The Inevitability of Alienation," (An Introductory Essay) in Richard Schacht, *Alienation*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70); pp. xv-lviii

\_\_\_\_\_, "Coming to Terms with Hegel,"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January 2, 1976

金學俊, 「마르크스의 『經濟·哲學手稿』 論爭」, 『蘇聯政治論』(서울: 一志社, 1976); pp. 320~44

金綜錄, 「프랑크푸르트學派의 批判理論」, 『文學과 知性』, 第18號(1974년 겨울), pp. 796~805

\_\_\_\_\_, 「理性的 道具化」, 『讀書生活』, 第4號(1976년 3월), pp. 144~55

金柱演編, 『現代文化와 疎外』(서울: 現代思想社, 1976)

Labeledz, Leopold, ed., *Revisionism: Essays on the History of Marxist Idea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Lasswell, Harold D., "The Threat to Privacy," *Conflict and Loyalties*, ed. R. M. MacIver (New York: Harper & Brothers, 1925)

李克燾, 「現代에 있어서 自由의 問題點」, 『社會科學論集』, 第6輯(延世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73), pp. 1~16

李奎浩, 『사람됨의 뜻(哲學의 人間學)』(서울: 第一文化社, 1975)

Levi, Albert William, *Humanism and Politics: Studies in the Relationship of Power and Value in the Western Tradi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9)

Lichtheim, George, "Alien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ed. by David Sills (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1968),

參考文獻 303



Vol. I, pp. 264~8

\_\_\_\_\_, "From Historicicism to Marxist Humanism,"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June 5, 1969

Lim, Sok-Zin, *Der Begriff der Arbeit bei Hegel: Versuch einer Interpretation de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Bonn: H. Bouvier u. Co. Verlag, 1963)

林錫珍, 「人間的自己推動性과 疎外の原理」, 崔敬喜編, 『現代의 人間發見(1)』 (서울: 太極出版社, 1974), pp. 391~427

Löwith, Karl, *Von Hegel zu Nietzsche: Der revolutionäre Bruch im Denken des 19. Jahrhunderts* (Stuttgart: W. Kohlhammer, 1958)

\_\_\_\_\_, "Man's Self-Alienation in the Early Writings of Marx," *Social Research*, Vol. XXIV (1954), pp. 204~30

Lukács, Georg, *Der junge Hegel: Über die Beziehungen von Dialektik und Ökonomie* (Frankfurt/M.: Suhrkamp Taschenbuch Verlag, 1973)

\_\_\_\_\_,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Studies in Marxist Dialectics*, trans. by Rodney Livingston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72)

Lynd, Robert S., *Knowledge for What? The Place of Social Science in American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5)

MacIver, Robert M., *The Ramparts We Guard*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0)

Maihofer, Werner, *Demokratie im Sozialismus: Recht und Staat im Denken des jungen Marx* (Frankfurt/M.: Vittorio Klostermann, 1968)

Mannheim, Karl, *Man and Society in an Age of Reconstruc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40)

Marcuse, Herbert, "Neue Quellen zur Grundlegung des historischen Materialismus," *Die Gesellschaft*, IX (1932), wieder abgedruckt in H. Marcuse *Ideen zu einer kritischen Theorie der Gesellschaft* (Frankfurt/M.: Suhrkamp Verlag, 1976), S. 7~54

\_\_\_\_\_, *Reason and Revolution: Hegel and the Rise of Social Theory* (Boston: Beacon Press, 1964)

\_\_\_\_\_, *Eros and Civilization: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Freud* (Boston: Beacon Press and Vintage Books, 1955/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6)

\_\_\_\_\_, *One-Dimensional Man: Studies in the Ideology of Advanced Industrial*

304

*Society* (Boston: Beacon Press, 1964)

Mészáros, István, *Marx's Theory of Aliena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Mills, C. Wright, *White Collar: The American Middle Class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_\_\_\_\_,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Nicolaus, Martin, "The Unknown Marx," *New Left Review*, Vol. 48 (March/April, 1968), pp. 41~61

\_\_\_\_\_, "Foreword," *Grundriss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Vintage Books, 1973), pp. 7~66

Nisbet, Robert A., *The Quest for Commu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7/1969)

\_\_\_\_\_, *The Sociological Tradition* (London: Heinemann, 1967)

Novack, George, ed., *Existentialism versus Marxism: Conflicting Views on Humanism* (New York: Dell Publishing Co. Inc., 1966)

Oppenheim, Felix E., "'Facts' and 'Values' in Politics: Are They Separable?" *Political Theory*, Vol. I, No. 1 (February, 1973), pp. 54~68

\_\_\_\_\_, "A Comment on Oppenheim, see Held, Virginia (1973)

\_\_\_\_\_, "Descriptive Terms of Political Discourse: A Rejoinder to Virginia Held," *Political Theory*, Vol. I, No. 1, pp. 76~8

Overend, Tronn, "Alienation: A Conceptual Analysi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XXXV, No. 3 (March 1975), pp. 301~22

Packard, Vance, *The Hidden Persuaders* (New York: David McKay, 1957)

裊成東, 「政治的解放」, 『政治學大辭典』(서울: 博英社, 1957), pp. 1363~64

Pappenheim, Fritz, *The Alienation of Modern Man: An Interpretation Based on Marx and Tönnie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59)

\_\_\_\_\_, "Alienation and Society" (unpublished Ms., 1964/『疎外와 社會』, 앞과 함文庫 2 (서울: 思想社, 1974)

\_\_\_\_\_, "Alienation in America" (unpublished Ms., 1964)

\_\_\_\_\_, "Relative Values and the Quest for Socio-Political Standards," in *For Dirk Struik*, eds. by R.S. Cohen, et al (Dordrecht-Holland: D. Reidel

參考文獻 305



ERICH FROMM ONLINE

Proper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FREIHEIT.COM Veröffentliche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Publishing Co., 1974), pp. 575~80

Parsons, Talcott, "Profession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ed. David Sills (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1968), Vol. XII, pp. 536~47

Petrović, Gajo, *Marx in the Mid-Twentieth Century: A Yugoslav Philosopher Considers Karl Marx'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1967)

Popitz, Heinrich, *Der entfremdete Mensch: Zeitkritik und Geschichtsphilosophie des jungen Marx* (Basel: Verlag für Recht und Gesellschaft, 1953)

Quinton, Anthony, "Spreading Hegel's Wings,"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May 29, 1975 & June 12, 1975

Ramm, Thilo, "Die künftige Gesellschaftsordnung nach der Theorie von Marx und Engels," *Marxismusstudien*, 2. Folge, hrsg. von Iring Fetscher (Tübingen: J.C.B. Mohr, 1957), S. 77~119

—, "The Utopian Tradition," *Survey*, No. 38 (October, 1961), pp. 91~99

Riesman, David, et al., *The Lonely Crowd: A Study for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0)

Rosen, Bernard C., "Race, Ethnicity and the Achievement Syndro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4, No. 1 (February, 1959), pp. 47~60

Rotter, Julian B.,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54)

Schaar, John H., *Escape from Authority: The Perspectives of Erich Fromm* (New York: Harper & Row, 1961)

Schacht, Richard, *Alienation*, with an Introductory Essay by Walter Kaufmann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70)

Schmitt, Carl, *Politische Romantik* (Berlin: Duncker & Humboldt, 1968/『政治的浪漫』 裴成東譯, 서울:三省出版社, 1977)

Seigel, J.E., "Big Problem for Marx," *New York Review of Books*, October 31, 1974

Shils, Edward, "Mass Society and Its Culture," *Culture for the Millions*, ed., Norman Jacobs (Princeton, N.J.: Van Nostrand, 1961)

城塚登, 『フ・アイエル・バツハ』(東京:勁草書房, 1958)

—, 『新人間主義の哲学——疎外の克服は可能か』(東京:日本放送出版協会, 1972)

城塚登・廣松渉・清水多吉(鼎談), 『マルクス主義の思想的核』, 『理想』 第532号 (1977年9月), pp. 34~87

杉原四郎, 『MEGA(資料)』, 『社会思想』 I/1 (1971), pp. 152~63

Sutherland, Edward H., *White Collar Crime* (New York: Dryden, 1949)

竹内良知編, 『疎外される人間』(東京:平凡社, 1971)

Thier, Erich, "Etappen der Marxinterpretation," *Marxismusstudien*, 1. Folge, S. 1~36

Thomson, David, ed., *The Era of Violence, 1898~1945*, in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Vol. XII

Titarenko, A.I., "Erich Fromm in the Chains of Illusion," *Science and Society*, Vol. XXIX (Summer, 1965), pp. 319~29

Tönnies, Ferdinand, *Community and Society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trans. C.P. Loomi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1967)

Tucker, Robert, *Philosophy and Myth in Karl Marx*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4)

Van den Haag, Ernest, *Passion and Social Constraint* (N. Y.: Stein and Day, 1963)

Vranicki, Predrag, "Socialism and Problem of Alienation," in *Socialist Humanism*, ed. Erich Fromm, pp. 277~90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 Pars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When Dogma Bites Dogma, or the Difficult Marriage of Marx and Freud,"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January 8, 1971

Whyte, W. H., *The Organization Man* (Hammondsworth: Penguin Books, 1963)

Wilensky, Harold,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0, No. 2 (September, 1964), pp. 137~58

Wilson, Colin, *Outsider* (Boston: Houton Mifflin, 1956)

梁好民, 『マルス・メニ主義——理論批判篇』(서울:内外文化社, 1963)

Yanovitch, Murray, "Alienation and the Young Marx in Soviet Thought," *Slavic Review* (March, 1967), pp. 29~53

索引

家族 87, 88, 96, 140, 156, 226  
 價值 181, 184, 206, 207, 211, 223, 229, 233, 235, 236, 238, 247; 一觀 226, 228; 內在的 199, 202, 231, 245; 沒一的 202; 本源的一184; 一中立的 204, 219, 231; 一體系 228  
 價值上的 孤立 value isolation 206, 211, 213, 222, 223~4, 226, 230  
 加虐的 sadistic 145, 161, 163; 一중등 160  
 간스 Eduard Gans 44  
 感覺的 確信 32  
 感性 57, 66, 97~9, 101  
 強迫的 洗滌觀念 148  
 強制勞動 Zwangsarbeit 74, 101~2, 173  
 概念的 分析 conceptual analysis 246  
 改革者 innovator 91, 224  
 건전한 사회 126, 140, 154, 178, 186, 187~95, 196, 241, 242  
 『健全한 社會 The Sane Society』 125, 133, 145  
 게마인샤프트 22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22  
 게젤샤프트 22, 23, 212  
 겐덴 Arnold Gehlen 200  
 競爭 70, 71, 84~5  
 經濟恐慌 224  
 經濟主義 economism, 唯物的一104, 108, 109, 111; 一決定論 108, 143  
 『經濟學·哲學草稿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一名 『巴里草稿』) 37, 39, 40, 41, 42, 57~60,

63, 64~83, 86, 88, 90, 94, 102, 103, 113, 114, 177; 一論爭 42, 110~1, 114~8  
 階級 21, 55, 56, 88, 90, 91, 93, 136, 180, 216, 222; 一의 同質性 108; 一意識 92, 93; 一支配 88; 一鬭爭 62, 88, 102; 一解放 90  
 孤獨 41, 157, 158, 159, 166, 184, 213, 235; 一感 163, 225, 226; 一의 恐怖 159  
 孤立 isolation 22, 67, 118, 125, 158, 165, 173, 228  
 告發 186, 195, 242  
 攻擊(的) aggressive 146; 防禦的一 164, 165; 一性 152; 惡性的一164, 165; 良質的一164, 165; 擬似一164; 一破壞性 163  
 共同性 13, 35, 36, 67, 88; 一社會生活 100  
 共同體 12, 20, 22, 25, 35, 53, 62, 140; 一感 213; 一意識 212  
 共同體的 社會 communitarian society → 건전한 사회  
 『共產黨宣言』 37, 42, 43, 63  
 共產主義 60, 63, 64, 84, 108, 109, 176; 마르크스의-94~103; 一社會 16, 176, 240; 一社會의 構造批判 177; 一의 三段階 95~7; 粗雜한-95, 96, 177, 240  
 共生(的) symbiotic 134, 145, 147, 161  
 工作人 homo faber 128  
 恐怖 131, 136, 159, 163, 去勢-173; 죽음의-131

關係感 relatedness 125  
 觀念論 28, 29n, 36, 50, 57, 58, 59, 104, 109  
 官僚制 167, 170, 172, 193, 206; 一國家 30; 一(組織)構造 172, 177, 183, 184; 一의 市民統制 193  
 管理社會 15  
 괴테 Johan Walfgan von Goethe 82  
 教育 30, 100, 156, 173, 191; 成人-191  
 教條(化) 110, 249; 一의 解釋 110, 120; 一主義 14  
 交換價值 70, 148, 149, 184  
 口唇愛 oral eroticism 145; 一의 性格 146  
 구트만 스케일링 Guttman Scaling 237  
 國家 24, 88, 96, 99, 103, 136, 170, 171, 207, 218; 一獨立 177, 193; 一資本主義 177; 自我의-109; 一至上主義 135  
 權威 146, 184, 189; 非合理的一193; 外部的一166; 合理的一193  
 『權威와 家族에 관한 諸研究 Studien über Autorität und Familie』 122~3  
 權威主義 115, 120, 165, 171; 一逃避 메 키니즘 147, 159~62, 163, 166, 172; 反動的一127; 惡性的一162  
 歸屬 rootedness 133, 134~5, 136; 一感 196  
 規格化 184, 220  
 規範 211, 222, 225, 236, 246; 無-222; 文化的一138; 社會的一210; 一의 構造 229; 一의 疎外 222; 行爲 228  
 그로진스 Morton Grodzins 212  
 그로티우스 Hugo Grotius 25  
 根源的 radikal 95n, 158, 196, 238, 246, 248, 249; 一改革 192, 193, 242; 一

批判 234, 237; 一委勢 186; 一主義 57; 一革命 55  
 近親愛 incestuous 135, 151; 一의 固着 135  
 글로크너 Glockner 31n  
 急進的 237; 一社會主義 52, 63; 一主義 51  
 期待感 expectancies 207, 208, 209, 210, 213, 215, 221, 232  
 『基督敎의 本質 Das Wesen des Christentums』 46~8  
 기조 Guizot 政府 61  
 氣質 temperament 138, 139  
 길레스피 J. J. Gillespie 174  
 나르시시즘 narcissism 151  
 나찌스 Nazis 114, 135, 151, 171  
 나폴레옹 Napoleon 30  
 樂觀主義 186  
 內面的 強制 inner compulsion 141  
 네크로필리아 necrophilia(愛死的) 145, 146, 150~1n, 164; 一性格 151; 一志向 175; 一志向型 150~2 一의 症候 165  
 네틀러 Gwynn Nettler 223  
 勞動 30, 32, 33, 34, 36, 66, 170, 173, 225, 230; 物質的(肉體的)-87, 100, 224; 本質志向的一230; (마르크스의)疎外된-69~78; 一市場 168; 黃金-101, 208; 精神的一87; 100; 224-組合 218; (헤겔의)-58~60  
 論理實證主義 logical positivism 238, 239  
 니스벳 Robert A. Nisbet 201, 212  
 니얼 Arthur G. Neal 218, 236  
 니콜라스 Nicolas 1세 50



斷片化 22, 225, 237  
 對象化 *Vergegenständlichung* 72, 73.  
 89  
 大衆 115; 一文化 15, 120, 200, 206, 211  
 223; 一脫得產業 189, 232; 一社會  
 150, 169, 178, 180, 207, 215, 226, 229;  
 一社會理論 205, 206, 208; 一運動  
 206, 209  
 代替可能性 *interchangeable* 150  
 道德論 143, 144; 一者 137; 一的關心  
 234  
 『도이체 이데올로기 *Deutsche Ideologie*』 39, 40, 61~3, 87, 94, 114  
 逃避 174; 一의 메커니즘 *mechanism of escape* 158~68, 174, 176, 178, 184, 242; 一方法 161; 一的手段 163  
 倒錯 *perversion* 161; 性的一 161  
 『獨佛年誌 *Deutsch-Französische Jahrbücher*』 38, 51, 52, 56, 57, 65n  
 瀆神的 172  
 獨壞系學者 117, 203  
 獨占 70, 71, 84~5, 120; 國家一177  
 獨裁體制 115, 244; 一批判 12; 非人間  
 的 177  
 들바하 D'Hollbach 61  
 同質化 21; 一性 206  
 同調 146, 150, 166, 171, 200; 群衆一  
*herd conformity* 136; 規範에의一  
 222  
 同化 *assimilation* 139, 145, 146  
 뒤르켐 Émile Durkheim 210, 212, 233  
 235, 237  
 뒤프레 Louis Dupré 104, 109  
 듀이 John Dewey 144  
 드 트라시 Destutt de Tracy 58  
 딘 Dwight G. Dean 222, 226

라이크 Theodor Reik 119  
 『라인新聞 *Rheimsche Zeitung*』 38, 44,  
 49, 50  
 러시아→소련  
 레닌 Lenin 113, 176; 一主義 40  
 레드필드 Robert Redfield 18  
 레빈 Murray Levin 218, 220  
 레티히 Salomon Rettig 218, 236  
 로벤탈 Leo Lowenthal 120  
 로크 John Locke 25  
 로터 Julian B. Rotter 207, 208  
 로비트 Karl Löwith 24  
 루게 Arnold Ruge 51, 56, 57  
 루소 Jean-Jacques Rousseau 13, 24~  
 8, 113, 239  
 루터 Martin Luther 23n  
 루카치 Georg Lukács 30, 40, 92n, 114,  
 116n  
 리 Dorothy Lee 19  
 리들리 Jeanne Clare Ridley 219  
 리비도 *libido* 139; 一構造 *libidinal structure* 122, 125, 145→社會的性  
 格; 一理論 124; 一의 固着 150  
 리아자노프 D. B. Riazanov 39  
 리이즈맨 David Riesman 149n, 179,  
 211  
 리처드슨 Arthur H. Richardson 226  
 리카르도 David Ricardo 52, 58  
 리히트하임 George Lichtheim 17, 235  
 마르크스 Karl Marx 13, 14, 16, 23, 24,  
 27, 36, 37~112, 113, 114, 116, 118,  
 121, 124, 125, 143, 176, 177, 179, 180,  
 182, 195, 199, 200, 205, 208, 216, 224,  
 233, 237, 239f, 241, 243, 244, 246  
 一思想의 連續性 43, 63, 94, 103, 110

~1; 一思想의 再解釋 114, 115, 116,  
 117, 120; 一主義 249; 青年一 13,  
 14; 104, 110, 114, 203, 239, 241, 243;  
 一初期著作 13, 38, 40, 42, 64~83,  
 94, 103, 110, 113, 114, 116, 117, 125,  
 126, 243  
 마르크스 앙겔스 研究所 39  
 『마르크스의 人間概念 *Marx's Concept of Man*』 126  
 마르크제 Herbert Marcuse 37, 40, 107,  
 116n, 199, 202, 238  
 만하임 Karl Mannheim 40, 209, 233  
 말리노프스키 Bronislaw Malinowski  
 19  
 賣却可能性 *saleability* 20; 勞動의一  
 24  
 매스 미디어 173, 224  
 매저키즘 *masochism*→被虐的  
 맥딜 Edward L. McDill 219  
 맥클로크 McCulloch 58  
 맥클로스키 Herbert McClosky 222,  
 226  
 머어턴 Robert K. Merton 210, 221, 223,  
 224; 一의 形態論 221  
 메링 Franz Mehring 37  
 메스자로스 István Mészáros 17  
 메시아 18n; 一의 到來 187; 一의 傳統  
 109  
 母權社會 123, 135  
 모어 Thomas More 108  
 無觀心 146, 150, 174, 186; 政治的一  
*apathy* 219  
 無規範性 *normlessness* 206, 210~1, 213  
 218, 220~3, 224, 226, 229, 230  
 無力 147, 160, 161, 164, 172; 一性 162;  
 狀態 208  
 無力感 *powerlessness* 125, 157, 158, 159,  
 163, 165, 166, 170, 174, 206, 208~9,  
 218~9, 220, 221, 228, 229, 230, 235  
 無目標性 *purposelessness* 222  
 무솔리니 Mussolini 115  
 無意味性 *meaninglessness* 160, 165, 166  
 209~10, 219~20, 222, 228, 230, 235  
 無制約的 *unbedingt* 30  
 文化的 疎外→價値上의 疎外  
 物象化 71  
 物神性 21, 80, 84, 180, 240; 一崇拜 36;  
 物化 *Verdinglichung* 92, 200, 248, 249;  
 事象의一 21, 85; 人間의一 24, 50, 89  
 미들턴 Russell Middleton 218, 222, 224,  
 226, 227  
 未來社會 94, 189, 191; 一像 119, 240;  
 一에의 希望 187  
 밀러 George Miller 224, 225, 227  
 밀즈 C. Wright Mills 197, 208, 211

바라카트 Halim Barakat 229, 236  
 바우어 Bruno Bauer 49, 52~3, 57  
 바이마르共和國 122, 209  
 바이틀링 Wilhelm Weitling 63  
 바쿠닌 Michael Bakunin 52, 112n  
 바호펜 Johann Jacob Bachofen 123  
 『反뒤링論 *Anti-Dühring*』 38  
 反抗兒 *rebellion* 224  
 버거 Peter L. Berger 238n, 248  
 벌린 Isaiah Berlin 43  
 베를린 博士클럽 Berliner Doktorklub  
 44, 48  
 變異 *freak*, 宇宙의一 129, 131, 132,  
 138; 自然의一 163, 241  
 辨證法 45, 47, 48, 58, 60, 62  
 補強 *reinforcement* 207  
 補償 *reward* 207, 208, 210, 212, 215,



224, 227, 232; 一價值 211; 社會的 218  
 本質意志 *Wesenswille* 22  
 브라우닝 Charles J. Browning 236  
 富裕한 人間 *der reiche Mensch* 99  
 否定性 89, 91, 93, 103; 一的 23, 24, 34, 61, 120, 139, 158, 178, 232  
 分業 62, 64, 70, 84~6, 88, 95, 100, 107, 220, 227, 228, 240; 一社會 88; 社會的一 87, 206  
 分化 22, 206; 一 *Entzweiung* 13  
 不可解의 感覺 209, 219  
 不安 164, 185, 200  
 不幸한 意識 *das unglückliche Bewußtsein* 35  
 悲觀主義 186  
 非生產的 145, 146, 150, 153, 172, 241; 一性格 154, 179, 185; 一志向型 146~52  
 非言表的 効力 *illocutionary force* 245, 246  
 非人間化 21, 56, 90, 99, 229, 235, 239  
 非挫折 *non-frustration* 의 原理 174  
 批判的 154, 186, 208, 234, 235, 237; 一理論 11, 12, 13, 120, 121, 204; 一精神 120; 一哲學 238, 247  
 『貧困의 哲學 *Philosophie de la misère*』 63  
 브와기에델 Boisgillebert 58  
 블라우너 Robert Blauner. 225, 237  
 블로흐 Ernst Bloch 40, 42  
 사도 에저키즘 *sado-masochism* 160  
 사디즘 *sadism* → 加虐的  
 사랑 83, 135, 146, 148, 157, 194, 197, 240; 生産的一 134

『사랑의 藝術 *Art of Loving*』 145  
 사르트르 Jean Paul Sartre 201  
 思辨哲學 105; 哲學的一 179, 180  
 사비니 F. K. von Savigny 44  
 使役의 効力 *perlocutionary force* 245  
 使用價值 148, 184  
 私有財産 51, 60, 62, 64, 65, 70, 71, 84, 78, 84~6, 88, 95~7, 102~3, 106, 107, 176, 227, 240; 一普通化 95  
 사이버네이션 *cybernation* 170  
 私人 *Privatmensch* 25, 53  
 私的所有 95, 107  
 社會契約論 23, 24, 25, 28, 113; 一者 25~6  
 『社會契約論 *Du contrat social*』 25, 26  
 社會(經濟的)構造 140, 156, 157, 158, 178, 196, 202, 205, 206, 222, 224, 227, 232, 233, 241, 242  
 社會心理學 121, 122, 125, 127, 138, 154, 156, 161, 208, 216, 217; 一的 裁制 168; 一的 理論 126, 132  
 社會理論 154; 一家 126  
 社會的 決定論 143  
 社會的 孤立 *social isolation* 206, 211, 212~3, 225~6, 230  
 社會的 性格 *social character* 115, 125, 138~44, 156, 178, 241, 242  
 社會(文化的)條件 208, 210, 221, 229, 230, 232, 242  
 社會的 解放 54  
 社會主義, 空想的 一109; 科學的一 37, 108; 一社會 176; 純正一者 *unfälschte Sozialisten* 40; 眞正한 一 *Sozialismus als Sozialismus* 103, 108, 109  
 社會化 *socialization* 97, 107, 139, 145,

146, 147, 152, 154~8, 168, 227, 242; 一過程 167, 232  
 相對主義 127; 一的 順應主義 128  
 想像力 136; 社會學的 197  
 象徵形成의 動物 *symbol making animal* 128  
 商品 148, 184, 208, 220; 勞動者의 一化 85, 86, 106; 一性 200; 一市場 168; 一의 物神性 180, 一化 71, 148  
 세이 J. B. Say 58  
 生命愛 *biophilia* 188  
 生産的 145, 152, 153, 172, 196, 197, 241; 一性格 154, 189; 一人間像 184; 一志向 146; 一志向型 152~3  
 생 시몽 Saint Simon 108~9  
 샤아 John H. Schaar 137, 180, 222, 226  
 서덜랜드 Edwin H. Sutherland 222  
 황 132, 134, 138, 144, 146, 147; 一性 196, 197; 一人 188; 一한 性格 144  
 釋佛敎 195  
 選擇意志 *Kürwille* 22  
 설리반 Harry Stack Sullivan 124  
 性感帶 *erogenous zone* 144  
 性器愛 *genital sexuality* 145; 一的 性格 152  
 性格構造 140, 141, 142, 178  
 性格(理)論 138, 144, 154, 196  
 性格類型 162; 一論 125 144~54  
 性格志向型 146, 179  
 『聖書』, 舊約一 17, 118, 119; 마태 130 n; 新約一18; 아모스 119; 예베소 18n; 이사야 17n, 119; 호세아 17 n, 119  
 成就感 224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82

셸링 Schelling 29  
 소聯 151; 一共產主義 120, 177; 一社會主義 177~8  
 消費 141, 169, 170, 173, 174, 183, 206; 召命 *Beruf* 21, 22  
 疎外構造 15f, 64, 83ff, 95, 104, 105, 180 ff, 213ff, 217, 228, 239ff, 243, 245, 246, 247, 248  
 『疎外된 人間 *Der entfremdete Mensch*』 117  
 〈疎外된 젊은이들 *The Alienated Youth*〉 223  
 〈疎外된 投票者 *The Alienated Voter*〉 220  
 〈疎外的 意味에 대하여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205, 211  
 所有 97, 98, 99, 148, 169, 175; 一의 執念 194; 一欲 *Habsucht* 80, 81, 82, 83, 84; 一의 感覺 98  
 소크라테스 Socrates 19  
 受苦하는 *leidend* 66, 92  
 受動的 134, 146, 174, 187, 190  
 數量化 21, 175, 180, 244  
 受容的 *receptive* 145, 173; 一志向 176; 一志向型 146~7, 153, 162, 168, 170  
 슈미트 Carl Schmidt 40  
 슐츠 Wilhelm Schulz 58  
 스몰 Leo Srole 221  
 스미드 Adam Smith 52, 58  
 스크트 Marvin B. Scott 235, 236  
 스탈린 Stalin 151, 162, 176~7  
 스토이시즘 *Stoicism* 34  
 스트리닝 Elmer L. Struening 226  
 스피노자 Spinoza 136n, 144  
 市民社會 13, 24, 54, 90; 一秩序 28; 一革命 13, 20, 21  
 시이델 Melvin Seeman 14, 16, 204~



15, 216,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7, 230, 232, 233, 234, 235, 236, 237, 242  
 市場의 marketing 146; 一關係 184; 一메커니즘 180; 一志向型 148~50, 153, 168, 170, 172, 176, 179, 241  
 시타인 Lorenz von Stein 51  
 시타인취행 Theodor Steinbüchel 40  
 시트라우스 David Strauss 45, 48  
 神經症 neurotic 159, 161; 一人間 157  
 信賴 83, 100, 102, 109, 176, 189, 191, 194, 197, 221, 230, 234, 240  
 『神聖家族 Die heilige Familie』 38, 60  
 新프로이트學派 Neo-Freudian School 123n, 124, 196  
 新플라톤主義 Neo-Platonism 17  
 信號體系 signal system 162, 167~8, 173  
 실버 Friedrich Schiller 24, 29, 30  
 實存的 132, 138; 一主義 40, 117  
 心理的 174, 202, 210, 221  
 心理學 127, 159, 162, 187, 226; 力動的 一 dynamic psychology 179~80; 一의 觀點 221; 一의 用語 223  
 아노미 anomie 210, 212, 221, 222, 223, 237  
 아노미아 스케일 anomia scale 221  
 아도르노 Theodor W. Adorno 203, 205, 220  
 아렌트 Hannah Arendt 117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 144  
 惡 132, 134, 138, 144, 192; 一한 性格 144  
 愛死的→네크로필리아

앤더슨 John Anderson 245  
 讓渡(與) 15, 26, 77, 134; 權利의 25; 不可의 權利 26; 商品의 20; 自發의 26; 資本의 24; 財産의 13; 政治權力의 24; 主權의 13, 27  
 量的 認識→數量化  
 言明 statement 204, 207, 234  
 言語行爲理論 theory of speech acts 245 ~6  
 言表의 効力 locutionary force 245, 246  
 『에밀 Émile』 25, 27  
 에이켄 Michael Aiken 225  
 에치오니 Amitai Etzioni 227, 242  
 엘베티우스 Helvétius 61  
 엥겔스 Friedrich Engels 37, 40n, 56, 57, 60, 61  
 輿論 164, 234  
 『歷史와 階級意識 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92n, 114  
 聯關性 relatedness 133~4  
 連帶關係 22, 128, 131, 158, 166; 一感 92; 二次의 159, 一次의 159  
 『예수의 生涯 Leben Jesu』 45, 48  
 豫言者의 言語 194~5; 一姿勢 194  
 假智人 homo sapiens 130  
 오르테가 José Ortega y Gasset 115  
 오버린드 Tronn Overend 245~6  
 오스틴 John Langshaw Austin 245, 246  
 오웬 Robert Owen 109  
 워디푸스 콤플렉스 Oedipus Complex 123n  
 外化 Entäußerung 29, 30, 32, 36, 58, 59, 72, 76, 78, 86, 89  
 要因處理分析 factoring procedure 237  
 欲求 needs 78, 107, 146, 171, 174, 224,

227; 根源의 78; 基本의 basic needs 121, 132~8, 139, 185, 196, 241; 內의 224; 物質의 87; 生理의 132; 洗練된 89; 疎外된 89; 利己의 78; 人爲의 189; 一面의 肉體의 68, 75; 粗野한 78, 80  
 欲望 136, 194; 病의 79; 탄탈러스의 175; (해결의) 32, 33; 幻想의 85  
 偶像 171, 172; 一崇拜 17, 171  
 웨버 Max Weber 233, 235  
 『遺稿集 Aus dem literarischen Nachlass von K. Marx, F. Engels, und F. Lassalle,』 1841 bis 1850 37~9  
 唯物論, 感覺의 60, 104; 啓蒙의 (프랑스의) 60~1; 機械의 45, 58; 歷史의 14, 61, 104~5n, 105, 106, 107, 108, 109, 110; 淺薄한 108  
 類의 本質 Gattungswesen (마르크스의) 27n, 51, 53, 54, 67~9, 71, 75~6, 84, 89, 92, 96, 105, 127; (포이엘바하의) 46~7; (해결의) 29n; 一生活 96, 102; 一性格 99; 一活動 (存在) 86, 240; 人間의 類 Menschengattung 48  
 유대교 35; 反一基督教社會 118; 反一主義 209; 一의 基督教 18; 一人 52, 216, 228  
 유대主義 Judentum 52~4, 83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Zur Judenfrage』 52~4, 80  
 倫理觀, 競爭의 169; 唯物의 143; 中世의 169; 프로테스탄트의 148; 幸福論의 eudaimonic 143  
 倫理學 138, 187; 一的 139, 208, 234  
 융거 Ernst Jünger 40  
 意識 31, 34, 35, 87, 96, 104, 182, 239; 一

狀態 232; 自己 32, 33, 34, 75, 92, 103; 自我 129, 130, 131; 集團 92; 虛偽 92, 232; 一化 92, 107, 108, 240  
 理念型 Idealtypus 146, 153  
 이데올로기 Ideologie 92, 110, 121, 142, 143, 176, 230  
 二分化→分化  
 理想社會 28, 184, 192, 193  
 理性 22; 135, 136, 146, 166, 242; 外化된 29; 一人 rational being 128  
 二元論 28, 29; 一의 構造 22  
 二律背反性 22  
 異質性 206, 227  
 人間關係 144; 一學 124  
 人間國有化 177  
 『人間不平等起源論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 de l'inégalité』 25  
 人間像(型) 25, 146, 170; 生産의 184; 理想의 101  
 人間性 25, 128; 一本性 101, 109, 126, 127, 137, 184, 196, 227, 228; 一本質 127, 131, 132  
 『人間倫理의 心理學的 探求 Man for Himself』 125, 145, 179  
 『人間의 마음 The Heart of Man』 145, 151  
 人間一般 man in general 106, 183, 240  
 人間(的) 一蔑視 192; 一狀況 117, 118, 126~32, 133, 137, 138, 170, 241; 一自由 191; 一尊嚴 169, 249; 一解放 12, 13, 20, 41, 53, 83, 101, 155; 一解體 210; 一化 186  
 人間前史 Vorgeschichte 102  
 人間主義(휴우머니즘) 101, 126, 176, 188, 189, 197; 一의 共產主義(東歐)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42; 一的社會學 242; 一哲學者 144  
 『人間破壞性的解剖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145, 151  
 人間學 *Anthropologie* (포이엘바하의) - 47; (프롬의) - 126~32; 哲學的 - 200, 一的必要 248  
 人格市場 *personality market* 149  
 人倫(的), 一共同體 29n; 一關係 35; 一的段階 106  
 認識論的 모델 *epistemological model* - 245~6  
 人種(的), 一小數集團 216, 219, 228; 一差別主義 128, 135; 一偏見 206  
 匿名性 206, 235; 一權威 *anonymous authority* 162, 166, 184  
 一般意思(志) *volonté général* 26, 27, 29n  
 一次的 *primary*, 一關係 226; 一自由 155; 一集團 225, 226  
 逸脫 200; 一者 *deviants* 141; 一行爲 201  
 自己歸還(復歸) 83, 89, 96, 101, 194  
 自己疏外 74, 105  
 自己疏遠 *self-estrangement* 206, 211 ~2, 218, 224~5, 230, 235  
 自己活動 *Selbsttätigkeit* 74  
 自動(的) 159; 一人形 *automaton* 173, 241, 242; 人形的 同調 159, 165~8, 162, 176, 184; 一化 170, 230  
 自發(的) *spontaneous* 152; 一關係 225 一性 152, 158, 164, 167, 172, 184, 197; 一行爲 157, 一活動 153  
 『資本論 *Das Kapital*』 37, 107, 113, 資本主義 148, 168, 169, 173, 177, 244; 國家 - 177; 一社會 13, 89, 90, 91, 92, 106, 176, 178, 184, 208, 240; 一的

內在的矛盾 13  
 自生的(自然成長的) *naturwüchsig* 87, 88  
 自我 149, 157, 158, 160, 161, 166; 一感覺的喪失 185; 一獨立 159; 獨自的 - 190; 一로부터의 分離 210; 一的實現 155~6, 158; 人間的一 163  
 自然權 162; 一理論 107  
 自然法論 20, 24  
 自然主義 *Naturalismus* 101  
 自由 22, 168, 184, 188, 196, 224, 249; 個人的 - 190; 拘束으로부터의 - 155; 一로운 存在 34; 一를 위한 鬭爭 154~5; 一民主主義 155; 一民 168; 市民的一 26; 原初的一 20; 一的問題(프롬) 154~8; 一的範域 108; 一的拋棄 26; 一的哲學 111; 積極的一 157; 政治的一 155, 170; 主體的 155  
 自由로부터의 逃避 158~60  
 『自由에서의 逃避 *Escape from Freedom*』 125, 145, 152  
 작스 Hans Sachs 119  
 作業的 *working* 146; 一志向的 152~3, 196  
 貯藏的 *hoarding* 146; 一志向型 147~8, 153, 169  
 專門化 29, 30, 87~8, 99, 100, 206, 230 ~1  
 前性器的 *pre-genital*, 性格 146  
 全體主義 120, 122  
 絕對君主 20, 22, 244  
 絕對神神 *der absolute Geist* 31  
 絕對知 *das absolute Wissen* 31, 35, 109

占有 *Besitzen* 97; 共同 - 95  
 正常的 16, 159, 173; 一性 136; 一人間 188  
 精神分析學 12, 14, 15, 117, 119, 121, 122, 123, 124, 127, 241; 人間主義的一 15, 16, 126~7n, 138, 154, 186, 195  
 『精神現象學 *Phänomenologie des Geistes*』 27, 30~6, 45, 65, 105, 106  
 正體 167; 一感 *identity* 133, 136, 166; 一性 158, 190  
 政治(國民, 古典派)經濟學 24, 52, 56, 57, 58, 59, 65, 60, 71, 80, 84, 86, 240  
 政治的, 一動物 *Zoon politikon* 128; 一無關心 *apathy* 219; 一解放 52, 53, 83  
 定向 *orientation* 133, 136~7, 240; 一體兵 137  
 制約 *Bedingen* 29, 30  
 操作 *manipulation* 105, 162, 167, 168, 173; 技術的一 21; 심벌의 - 106; 人間的一 180; 一者 173  
 操作(的) *operational* 12, 209; 一可能한 210, 214, 218, 233, 238; 一方法 204; 一定義 220  
 組織人 *organization man* 173  
 調和 226, 243; 高次的一 131; 不 - 226; 原初的 130, 133, 138  
 種 *species* (→類) 163; 一屬의 規準 68, 75  
 宗教改革 13, 20, 21, 23  
 罪意識 20, 171, 185  
 主人斗 奴隸的 辨證法 33, 34, 106, 108  
 主體 32, 35, 102, 136; 獨立된 - 172; 一로서의 人間 22; 一性 47; 人間 - 86; 一的自己에로의 自己復歸 32  
 죽음에의 本能 *death instinct* 165

準據基準 *frame of reference* 181  
 中國共產主義 177, 240  
 重農主義 56  
 中產階級 90, 142, 148, 169, 173  
 重商主義 59  
 知覺의 段階 32  
 知識社會學 40, 249n  
 知識人 211, 216, 228  
 地位追求型 200  
 遲滯現象 *lag phenomenon* 142  
 進步 131, 175, 244; 一의 衝動 132; 一의 方向 137, 138, 185, 196, 241  
 眞正性 *authenticity* 153, 167, 184, 227  
 <眞正한 信者 *The True Believer*> 209  
 集權化 193  
 集中化, 社會機構의 - 170, 172  
 症候 *syndrome* 236; 一群 185; 腐敗의 - 151; 愛死의 - 165; 一的記述 150; 態度의 心理의 - 233  
 搾取(的) *exploitative* 145, 160, 169, 176; 一志向型 147, 153, 162  
 參與 189, 219, 231, 234  
 創造 134, 136, 148, 163; 一의 170, 172; 一性 184; 一者 134, 181, 182; 一主 170  
 尺度 224, 226, 237; 疎外 - 232  
 『哲學의 貧困 *Misère de la philosophie*』 63  
 『青年 에겐 *Der Junge Hegel*』 31n, 116n  
 青年해방派 *Junghogelianer* 24, 36, 44 ~5, 48, 49, 61, 103, 120  
 超越 *transcendense* 133, 134  
 抽象化 *abstractification* 175, 181, 244, 248